

사회적자본 확충을 위한 자발적 참여 네트워크에 관한 연구

연구진

연구책임

- 박노동 / 사회적자본연구센터장

공동연구

- 정영운 / 사회적자본연구센터 연구원

< 목 차 >

제1장 서론	3
제1절 연구의 목적	3
제2절 연구의 범위와 방법	6
1. 연구의 범위	6
2. 연구의 방법 및 모형	6
제2장 사회적자본과 자발적 참여 네트워크 이론적 논의	11
제1절 사회적자본의 이론적 배경	11
1. 사회적자본의 개념	11
2. 현재 논의되고 있는 사회적자본의 연구방향	12
제2절 사회적자본과 자발적 참여 네트워크의 특성	14
1. 사회적자본과 네트워크	14
1) ‘자본’과 ‘사회적자본’의 구분	14
2) 사회적 네트워크 형성의 기제	15
2. 사회적자본과 자발적 참여 네트워크의 필요성	17
1) 자발적 참여 네트워크의 개념	17
2) 한국사회의 갈등과 자발적 참여 네트워크의 필요성	18
제3장 대전광역시 자발적 참여 네트워크 측정연구	23
제1절 자발적 참여 네트워크 측정을 위한 이론적 근거	23
1. 연구설계	23
2. 연구 분석의 틀	25
제2절 자발적 참여 네트워크 실증조사분석	27
1. 조사대상 표집	27
2. 자발적 참여 네트워크의 측정결과	30
1) 자발적 참여 네트워크에 대한 인식여부 측정결과	30
2) 사회적 지위 결정요인 및 지역사회에 대한 인식여부 측정결과	35

제4장 대전광역시 자발적 참여 네트워크의 수준과 정책적 제언	39
제1절 대전광역시 자발적 참여 네트워크 수준	39
1. 사회적 지위와 자발적 참여 네트워크 비교 분석	39
2. 자발적 참여 네트워크와 신뢰관계 비교 분석	42
3. 종합적 분석	45
제2절 대전광역시 자발적 참여 네트워크를 위한 정책적 제언	46
1. 공동체 의식 향상을 위한 정책적 제언	46
2. 공공지향성을 위한 정책적 제언	49
제5장 결론	55
참고문헌	57
부록 (설문지)	65

< 표 차례 >

<표 2-1> 사회적자본의 이론적 유형과 분류	12
<표 2-2> Putnam의 사회적자본 지수	17
<표 3-1> 성별·연령·학력·직업·거주지별 통계	28
<표 3-2> 월평균 가구소득·주거형태·거주기간·주택소유별 통계	29
<표 3-3> 대전광역시 지역주민의 주된 소속 모임	30
<표 3-4> 소속된 모임에서 직업, 학력, 경제수준의 차이	31
<표 3-5> 지역모임을 통해 얻은 효과에 대한 인식	32
<표 3-6> 지역모임에 선호하는 구성원에 대한 인식	32
<표 3-7> 지역모임 참여 이후 신뢰도의 변화	34
<표 3-8> 지역발전과 지역모임과의 상관관계여부	34
<표 3-9> 응답자 스스로 인지하는 사회적 지위 수준	35
<표 3-10> 사회적 지위 결정요인에 대한 인식	35
<표 4-1> 지역사회 및 자발적 참여 네트워크에서 나의 지위에 대한 인식차이	40
<표 4-2> 지위 우선순위를 결정하는 요인에 대한 인식차이	41
<표 4-3> 자발적 참여 네트워크안에 구성원들 사회적 지위 수준	41
<표 4-4> 이웃에 대한 신뢰의 정도	42
<표 4-5> 자발적 참여 네트워크 구성원들에 대한 신뢰의 정도	43
<표 4-6> 모임 참여 이후 이웃에 대한 신뢰의 변화 여부	44
<표 4-7> 지역발전을 위한 지역모임 참여의식 수준	44
<표 4-8> 지역발전을 위한 봉사활동 참여의식 수준	44
<표 4-9> 지역모임 활성화를 위한 정부지원의 필요성 여부	48
<표 4-10> 다른 지역 모임과의 교류 수준	49
<표 4-11> 해외의 지역봉사활동 참여를 위한 정책 사례	50
<표 4-12> 대전광역시 사회적자본 관련 시책 중 봉사활동 참여를 위한 정책 사례	51

< 그림 차례 >

<그림 3-1> 연구 분석 틀	26
<그림 4-1> 대전광역시 사회적 지위와 자발적 참여 네트워크의 상관관계	46

제1장 서론

제1절 연구의 목적

제2절 연구의 범위 및 방법

제1장 서론

제1절 연구의 목적

최근 지방정부는 지역발전을 위해 지역 주민의 참여를 기반으로 하는 성공적인 거버넌스를 위해서, 지역사회에 다양한 차원의 네트워크 형성과 네트워크를 통한 새로운 차원의 신뢰관계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Putnam(1993, 1995)과 Coleman(1988, 1990) 외의 대다수의 학자들은 제도적 관점에서 지역주민의 참여를 위한 네트워크, 신뢰 및 규범과 같은 사회적자본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Putnam(1993)은 이탈리아 지방정부의 효과성에 대한 연구를 통해, 남부 이탈리아와는 다르게 북부 이탈리아의 경우 자발적 단체 활동을 중심으로 형성된 수평적 네트워크로 인해서 사회적자본이 높은 수준으로 발전하였다고 밝히고 있다. 그리고 Putnam(2000)은 사회적자본을 사회적 네트워크와 개개인의 연결이며, 그들 사이에 신뢰와 호혜성을 향상시켜나가는 것”으로 정의하며, 자발적 참여 네트워크가 사회적자본의 중요한 요소임을 강조하고 있다.

또한 World Bank(Grootaer, Narayan & Woolcock(2004), OECD와 같은 세계기구에서는 개발도상국의 지역발전을 위한 과제로 사회적자본과 관련된 다양한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으며 사회적자본을 미래사회의 지속적인 성장의 주요 원동력으로 보고 있다. 이미 영국, 캐나다, 미국과 같은 선진국은 사회적자본을 지역의 학교와 보건위생 분야 등에 적용하여, 무너진 신뢰관계를 개선하고 지역의 발전을 주도하는 방안을 제시하고 이와 함께 다양한 사례연구를 발표하고 있다.

구성원 간의 네트워크 활동은 형태에 따라 다른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 먼저 결속력은 약하나 다양한 커뮤니티를 연결하는 포괄적인 형태의 네트워크는 사회협력을 촉진하는 데 도움이 된다(Putnam, 2000). 그러나 혈연, 지연, 학연 등 결속력이 강한 결합형 네트워크는 그룹 내 밀착된 연결고리를 통해 신뢰를

증진시킬 수 있으나, 그룹 외부 사람에게는 배타적일 수 있어 사회협력을 저해할 수 있다. 특히 가족 중심의 사회인 중국, 한국 및 남부 이탈리아는 신뢰의 범위가 혈족과 출신 지역의 좁은 폐쇄형 네트워크로 한정되며(Fukuyama, 1995), 결혼, 성별, 나이와 같은 특정 사회적 지위요소로 인한 사회적 불평등이 사회적자본을 방해하는 요소로 분류되어 이를 위한 해결방안으로 다양한 계층의 자발적 참여 네트워크의 확산을 제시하는 연구도 증가하고 있다(Lin, 2012).

이에 우리나라에서도 지역정부의 성공적인 거버넌스를 위해서는 사회적자본이 전제가 되어야 하며, 특히 주민이 참여할 수 있는 네트워크의 개발과 함께 네트워크 안에서 신뢰관계를 회복하고 향상시키기 위한 관리방안에 대한 지역적 차원의 연구가 필요하다. 이를 위해서 대전발전연구원(2013)에서는 대전지역의 사회적자본의 수준을 측정할 수 있는 지표를 개발하였고, 분석 결과 대전시의 네트워크의 참여 수준이 비교적 높게 나타났다. 연구에 의하면 응답자의 92%가 하나 이상의 지역모임의 구성원으로 소속되어 있었으며, 친목회, 동창회, 학부모임과 같은 자발적 참여 네트워크에 대한 의식이 긍정적임을 알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회적자본의 네트워크를 연구하는 국내외 문헌은 어떻게 이러한 자발적 참여 네트워크¹⁾가 사람들 사이의 결속력이나 신뢰도를 향상시켜 지역사회의 발전을 이끄는 지에 대한 실증적인 연구를 제시하고 있지 못하고 있다. 최근 사회적자본을 연구하는 Lin, Erickson(2012)과 같은 학자들은 Position Generator 기법을 제시하여 자발적 참여 네트워크와 사회적자본의 발전의 상호관련성을 연구하고 있다. 이러한 연구는 구성원들이 실제 사회에서 인지하는 사회적 지위의 차이로 인해 형성되는 불평등과 불신과 같은 폐쇄적이며 부정적인 관계로 인한 문제를 자발적 참여 네트워크의 구성원들의 새로운 관계나 네트워크 간의 새로운 관계로 인해 신뢰를 향상시켜 지역사회 여러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가의 여부 등을 여러 요인과 관련하여 실증적으로

1) 본 연구에서 '자발적 참여 네트워크'란 사회적자본인 네트워크를 의미하며 사회적자본과 관련된 다른 문헌에서는 종종 수평적 결사체, 자발적 결사체 등의 용어로도 사용되고 있다.

조사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서는 다음 장에 자세하게 논의하고자 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대전광역시의 자발적 참여 활동을 중심으로 하는 사회적자본으로서의 네트워크에 대한 연구와 함께 이러한 자발적 참여 네트워크가 지역사회에 긍정적인 역할을 하고 있는 지에 대한 상관관계를 조사할 것이다. 이러한 네트워크는 지방정부의 거버넌스 구축을 위한 주민참여의 통로이며 동시에 지역사회의 신뢰를 향상시켜 지역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새로운 자본인 사회적자본을 발전시킬 수 있는 주요한 요소이기 때문이다. 본 연구는 대전광역시뿐만 아니라 지역주민의 참여통로인 자발적 참여 네트워크의 활용을 통해, 불신으로 인한 비효율·고비용의 문제에 대한 분석과 해결방안을 정책적으로 제안 할 수 있는 근거를 제시하며 나아가 지역발전을 위한 지역의 사회적자본을 확충할 수 있는 중요한 근거로 사용할 수 있을 것이다. 이와 같이 본 연구에서 추구하는 구체적 연구목적은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일반적인 네트워크와는 다른 사회적자본으로써의 자발적 참여 네트워크에 대한 개념을 정립하고, 기존의 문헌을 분석하여 자발적 참여 네트워크에 대한 연구의 필요성을 제시한다.

둘째, 최근 사회적자본을 연구하는 학자들에 의해 사회적자본으로서의 네트워크를 분석하기 위해 개발된 Position Generator 방법을 활용하여 한국의 문화적 차이를 고려한 사회적 지위를 결정하는 요인들을 분석하고 제시한다.

셋째, 대전의 자발적 참여 네트워크의 수준 및 실태를 측정하기 위해서 사회적 지위를 결정하는 요인들이 자발적 참여 네트워크에서 구성원들에 어떻게 인식되고 있는 가를 대전광역시 주민들을 대상으로 실증적 조사를 실시한다. 그 결과를 통해 사회적자본인 네트워크가 사회적 지위의 차이로 인한 불신관계를 회복하는 데 어떠한 역할을 하고 있는 가에 대해 살펴보고, 이를 위한 자발적 참여 네트워크의 관리방안 및 정책적 제안을 제시한다.

제2절 연구의 범위와 방법

1. 연구의 범위

본 연구는 총5장으로 나누어져 있다. 제1장에서는 연구의 목적, 범위 및 연구방법을 제시하였고, 제2장에서는 자발적 참여 네트워크의 이론적 의의와 논의의 필요성을 제시하였다. 제3장에서는 사회적자본인 자발적 참여 네트워크를 연구하기 위해 최근 개발되어 활용되고 있는 Position Generator 방법을 소개하고, 대전광역시(이하 대전시)의 자발적 참여 네트워크를 측정하기 위해서 사회적 지위를 결정하는 요인 및 실증적 자료 조사의 이론적 근거를 제시하고 있다. 그리고 이론적 근거를 중심으로 하나의 특정지역의 사회적자본의 네트워크 실태와 수준을 측정하기위해 다섯 가지의 사회적 지위와 자발적 참여 네트워크와의 상관관계를 분석하기 위해, 이를 중심으로 설문지를 작성하여 대전시의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를 분석하였다. 제4장에서는 설문응답의 결과를 나누어 분석하여 대전시에서의 사회적자본으로서의 자발적 참여 네트워크 수준과 정도를 제시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제5장에서는 연구의 정책적 함의와 한계점을 제시하였다.

2. 연구의 방법 및 모형

설문지는 최근 사회적자본을 실증적으로 조사하여 사회에 나타나는 사회적자본의 효과와 상호관련성을 연계하여 연구하는 Nan Lin과 Bonnie Erickson 등의 전문가들에 의해 소개되고 있는 Position Generator Methodology(이후 PG)를 참고하여 작성하였다. PG는 나라와 문화마다 다른 사회적 지위를 결정하는 요인들을 찾아내어 이러한 요인들이 사회적자본으로서의 네트워크 안에서는 어떠한 변화를 가져오는지, 또는 차이가 있는 지를 다양하게 연구하는

방법이다(Lin&Erickson, 2013). 이러한 연구는 실제 사회에서 사회적자본의 효과성을 입증할 수 있는 근거가 될 수 있으며, 사회의 네트워크의 수준과 상태를 사회적자본이라는 영역 안에서 분석할 수 있는 근거를 제시하고 있다. 아직까지 정형화된 공식이나 방법은 없지만 다양한 나라의 사회적자본 전문가들의 분석 결과는 사회적자본의 유용성을 수치와 데이터로 제공할 수 있는 모델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대전시의 자발적 참여 네트워크가 사회적자본인 신뢰와 어떠한 관련성이 있는가를 분석하기 위해 PG를 사용하여 사회적 지위 요인들을 제안하고 대전시의 주민들이 자발적 참여 네트워크 안에서는 이러한 사회적 지위가 어떻게 인식되고 있는지를 분석하기 위한 설문지를 작성하였다. 모집한 양적 자료를 분석하여 대전광역시의 사회적자본의 수준과 실태를 측정하였다. 연구 방법은 다음과 같다.

첫째, 대전광역시(이하 대전시)의 5개의 지역구의 주민을 모두 대상으로 하였으며, 연령별, 성별, 학력별, 거주지별, 직업별, 소득별, 동네거주기간별, 혼인상태에 따라 8개의 구별 항목과 함께 교차분석하여 대전시 지역주민의 사회적자본의 측정에서 표본추출의 유의미성을 높이고자 하였다.

둘째, 사회적 지위와 자발적 참여 네트워크와의 상관관계를 측정하기 위해 사회적 지위를 나이, 성별, 직업, 경제적 수준, 학력으로 제시하였고, 자발적 참여 네트워크 안에서의 의사결정력 수준이 사회적 지위와 관련성이 있는가를 비교 분석하였다.

셋째, 자발적 참여 네트워크의 참여 후 지역사회에 대한 신뢰도와 지역정책 및 행사 등의 참여도를 지역주민의 행동 등을 통해 측정하였고, 이를 근거로 대전광역시의 자발적 참여 네트워크의 정도와 수준을 측정하였다.

하지만 이러한 분석방식은 아직까지 정형화된 방법이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사회적 지위를 결정하는 방식에 있어서 연구자의 주관적인 의견이 연구의 중요한 변수가 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객관적이지 않을 수 있을 수 있으나, 사회적자본과 그 기대효과에 대한 상호연관성 및 지역주민의 인식 및

지역문화와 특성의 고려를 반영한 실질적인 분석으로 사회적자본의 기여도를 밝힐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우선 지역사회의 사회적자본을 확충하기 위해서 자발적 참여 네트워크의 내재적 요인 및 외부적 영향력(사회적 지위)과 개인의 소속 활동 등과 관련된 구조적 사회적자본과 신뢰를 위해 요구되어지는 행동들과 연관된 개인의 경험 및 인지적 요소를 측정하여 네트워크에서 요구되어지는 신뢰 등과 관련된 사회적자본을 실증적으로 측정할 수 있고, 나아가 실제 지역사회에 사회적자본과 관련된 행동들이 네트워크를 통해서 어떻게 나타나고 있는가를 측정하여 대전시의 사회적자본을 측정할 수 있다는 데 그 의의가 있다.

제2장 사회적자본과 자발적 참여 네트워크의 이론적 논의

제1절 사회적자본의 이론적 배경

제2절 사회적자본과 자발적 참여
네트워크

제2장 사회적자본과 자발적 참여 네트워크의 이론적 논의

제1절 사회적자본의 이론적 배경

1. 사회적자본의 개념²⁾

사회적자본은 다양한 이론과 접근 있으며, 1990년대에 이르러 몇몇의 학자에 의해 개념과 연구가 크게 확대되었다. 특히 Putnam(1993)은 신제도주의적 관점에서 규범, 네트워크, 신뢰를 중심으로 실증적 연구를 진행한 결과 공공이슈에 대한 시민참여 네트워크와 지역의 규범을 중심으로 이루어진 사회적 결속이 강한 지역에서 참여와 협력이 나타나고, 이와 같은 사회적자본이 강한 지역의 지방정부의 성과가 다른 지역보다 높게 나타나고 있다고 설명하고 있다. Fukuyama(1995)는 사회적자본을 ‘신뢰’로 보면서 경제적 번영과 신뢰의 관계를 설명하고 있다. 고신뢰 사회인 독일, 일본, 미국의 경우에 전문경영인이 관리하는 대규모 민간기업이 다수 존재하여 효율성이 높으나, 프랑스, 이탈리아, 중국과 같은 저신뢰 사회에서는 다른 사람들에 대한 신뢰의 부족으로 가족들끼리 경영하는 기업이 많게 된다는 것이다.

서순탁(2002)은 공공재의 가치를 유지하고 제고시키는 데 있어서의 사회적자본을 강조하고, 나아가 사회적 자본이 경제성장과 민주발전 및 현대사회가 직면하고 있는 많은 공동관심사의 해결에 크게 기여할 수 있는 개념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서순탁은 이와 관련하여 사회적자본의 유형에 대한 관점을 기능적 접근과 규범적 접근으로 분류하여 정의하고, 사회적자본을 연구한 학자들이 강조하고 있는 사회적자본의 구성요소를 분류하였다. 다음의 표는 서순탁의

2) 본 절은 대전발전연구원(2013)의 ‘지역사회 사회적자본 측정 및 관리방안에 관한 연구 (pp.11-13)’에서 재인용함.

사회적자본의 이론적 유형과 구성요소를 요약하여 정리한 것이다.

<표 2-1> 사회적자본의 이론적 유형과 분류

기능적 접근			규범적 접근		
학자	사회적자본의 내용	사회적자본의 구성요소	학자	사회적자본의 내용	사회적자본의 구성요소
토크빌 (Tocqueville)	개개인이 단체를 구성하여 공공의 이익을 추구하려는 성향	시민적 연대와 자발적 참여	인스 (Innes)	참여자들의 공유된 자본 중 하나로 보며, 합의형성의 전제조건으로 이해	지적자본 정치적자본 관계자본
콜만 (Coleman)	생산적 개념으로 특정목적달성을 위한 관계속에서 개개인의 특정행위	사회적 관계구조 규범 제재			
후쿠야마 (Fukuyama)	사회구성원간의 신뢰	신뢰	힐리 (Healey)	제도적 자본의 하나로서 지식과 인적자원을 연결시켜주는 네트워크를 의미	지식 관계자본 (네트워크) 동원능력
퍼트남 (Putnam)	협동적 행위를 촉진시키는 규범, 신뢰, 네트워크를 의미	네트워크 사회적 규범 신뢰			

2. 현재 논의되고 있는 사회적자본의 연구방향

위에서 이미 언급했듯이 영국, 캐나다, 미국과 같은 선진국에서는 사회적자본에 대한 개념과 실증적 연구에 많은 관심을 집중시키고 있으며, OECD, World Bank와 같은 국제기구는 개발도상국의 인적자원개발과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지표개발로써의 사회적자본에 대한 연구를 진행하고 있다. 특히 2004년 발표한 World Bank의 연구보고서(Grootaert, Narayan, woolcock 등)에

서는 사회적자본이 취약한 개발도상국을 포함한 다양한 나라에서 적용하여 연구할 수 있는 사회적자본 측정지표를 연구한 바 있다. 보고서에서는 연구를 위한 이론적 배경으로 사회적자본에 대한 이론적 접근을 실증적인 연구를 위해 크게 세 가지로 나누어 정리하였다.

첫째, 사회학자인 Burt, Lin과 Poters의 개념을 정리하여 ‘사회적자본이란 개인이 다른 개인들과의 관계에 의해 얻을 수 있는 자원(정보, 아이디어, 지원 등)을 의미’한다고 밝히고 있다. 즉 이러한 자원(capital)은 물질 또는 인적자원과는 다르게 관계를 통해서만 접근할 수 있는 “사회(social)”의 의미를 포함하고 있다는 것이다. ‘관계’를 위해서는 네트워크가 필요하며, 네트워크를 통해서 이동되는 자원에 의해서 네트워크의 구조가 다시 변화한다는 것이다.

둘째로, 정치학자인 Putnam의 접근을 중심으로 일반적인 사회적자본의 개념을 정리하고 있다. 위에서 이미 살펴보았듯이 다양한 비공식 네트워크나 공식적인 시민조직(civic organizations)안에서 개인의 참여의 정도나 본질을 사회적자본으로 정의한다. 그러나 첫 번째의 관계와는 다르게 네트워크는 지역사회 구성원의 상호작용이 다양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유형의 것을 의미하며, 정치적 조직 및 사회적 조직으로서의 네트워크를 포함하고 있다. 이러한 모임에서 사회적 문제(범죄, 건강, 빈곤, 실업 등)에 관심을 갖고 자원봉사나 지원적 행동을 시민과 정책참여자들이 함께 논의하되 이들 사이에서 과거 붕괴되고 있는 사회적자본을 새로운 사회적자본으로 변화하고 제설계하기 위한 구체적인 논의에 대해서도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고 사회적자본의 의미를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위의 연구보고서는 “linking”이라는 개념으로 사회적자본을 분류하고 있는 Woolcock와 World Bank의 개념정의를 설명하고 있다. 한 개인이 권력적 지위가 있는 사람(예를 들어 정치적 조직, 민간 조직(은행))과 연결되는 것을 의미한다. 개인은 수직적 또는 수평적 조직에서 다른 이들과 관계를 형성하는 데, 여기에서의 관계란 권위적 관계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경제적 의미의 수혜자와 제공자의 관계이다. 즉 교육, 농수산물, 의료와 같은

서비스를 지역주민이 삶의 질(well-being)을 향상시킬 수 있는 방향으로 제공 받을 수 있도록 지역의 지도자가 사회적자본을 ‘연결(link)’의 개념으로 이해해야한다는 것이다. 선진국과는 다르게 은행수수료율이 높고, 공권력의 부패율이 높으며, 교사의 능력저하와 같은 것이 많은 나라는 사회적자본이 확충되면 수준 높은 공공서비스의 수혜가 가능하며(Narayan, 2000), 국가의 정책에 대한 참여율을 높일 수 있다(Krishna, 2002)고 보고 있다.

제2절 사회적자본과 자발적 참여 네트워크의 특성

1. 사회적자본과 네트워크

1) ‘자본’과 ‘사회적자본’의 구분

지난 20여년 동안 사회적자본은 다양한 분야에서 함께 논의되고 역할과 필요성에 대해서 강조되어왔다. 그러나 사회적자본을 정확하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우선 자본의 개념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자본(capital)’은 개념이자 이론이다. 개념은 사회에 가치가 있는 자원의 소유나 투자와 같은 것을 의미하고 있고, 이론은 생산되고, 활용되고, 축적되는 메커니즘 전체를 의미하고 있다(Lin, 2001). 예를 들어 마르크스는 자본을 생산의 소유과정에서 창조되는 잉여의 가치로 정의하고 있으며, 노동자와 생산의 수단을 소유한 사람 사이의 착취관계로 설명하고 있다. 물론 노동 가치(임금), 시장과 소비가치(재화가격 등)로써의 공급 가치로 설명하는 이론이 대부분이다.

이후 신자본주의를 연구하는 학자들은 ‘자본’을 노동자의 생산성과 연계해서 인적자본을 강조하면서, 생산시장에 참여하는 노동자들을 위한 특별한 인적자원(기술, 지식 등)이 경제적 가치를 높이기 때문에 노동자들의 기술개발에 대한 투자 및 임금협상과 같은 분야의 연구를 중요시하였다. 그러나 Bourdieu(1972)는 인적자본의 개발과 소유를 위해 사용되는 엘리트(소유한 자)

들이 행동과 의식수준이 그 사회의 문화를 형성하는 데 우위를 갖게 된다고 지적하고 있다. 이러한 엘리트들이 그들의 우선권을 취득하려는 성향으로 인해, 각각의 사회는 엘리트들이 소유하고 있는 것(재산, 학력, 성별 등)이 중요하게 여겨지고, 엘리트가 아닌 사람들과 노동의 결과로 이러한 것들로 보상받거나 소유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받게 된다.

그러나 사회적자본에서의 ‘자본’은 사회에서 개인적 · 집합적(공동체적) 행동에 대한 결과로 축적되는 자원의 가치이다. 사회적자본은 사회적 관계에서 형성되며, 사회적 관계에 대한 투자가 “공급가치”를 의미하고, 이윤을 얻기 위해 개인적 집단이 관계를 형성할 수 있는 다양한 메커니즘을 생산한다. 따라서 사회적자본은 개인사이의 관계를 형성시키는 연결점이며, 중간단계(meso-level)구조를 갖추고 있으며, 사회 네트워크를 의미하기도 한다. 즉 사회적자본의 정의에서 가장 핵심적으로 것으로 네트워크를 강조하고 있다³⁾.

2) 사회적 네트워크의 형성의 기제

사회적자본에 대한 논의는 1916년 그 개념을 최초로 사용한 Hanifan에서 시작되었다(Putnam, 2000). 미국 웨스트버지니아 주 농촌 지역을 담당하는 교육장이었던 Hanifan은 “개인과 가족 간의 자선과 친교, 동정심, 사회적 교류 등은 사람들의 일상을 결정하는 중요한 역할을 한다. 개인은 혼자 내버려두면 상호협력이 불가능하지만, 이웃과 접촉하고 교류를 시작하면서부터 ‘사회적 자본’이 축적되기 시작한다. 사회적자본은 개인의 사회생활에 필요한 자산이 될 뿐만 아니라, 사회 전체의 생활수준을 향상시키는 데 크게 기여하게 된다. 사회 각 구성원의 협력은 공동체 전체에 이익을 주며, 개인 역시 이웃과의 교류와 상호협력, 사회적 연대감 등을 통해 많은 이익을 얻게 된다.”라고 했다(삼성경제연구원, 2010). 이러한 논의는 1980년대 들어 프랑스의 Bourdieu에 의해 더욱 구체화 되었고, 그는 “상호이해와 협조의 제도적 관계를 증진시키기

3) 이러한 접근은 Bourdieu(1980), Lin(1982), Coleman(1988), Flap(1001), Burt(1992), Putnam(1993, 2000), Erickson(1995) 등의 학자에 의해서 주장되고 있다(Lin, 2013).

위한 네트워크를 포함하는 사회적 자원의 합계”라는 정의로 사회적자본을 경제적자본과 문화적자본으로 구분였다. 1990년대 이후 Coleman(1990)은 “공동의 목적을 효율적으로 달성하기 위해 구성원들을 함께 움직일 수 있게 하는 신뢰와 규범, 사회생활의 네트워크”로 사회적자본을 정의하였으며, 이후 Putnam은 수평적 네트워크인 자발적 결사체가 신뢰와 협력을 도출하는 데 절대적임을 강조하였다(김승현, 2006).

사회적자본에서 네트워크는 신뢰를 증진하고, 나아가 공동참여 기회의 확대, 가치의 공유, 정확한 정보유통의 확산을 통해 여러 가지 사회비용을 감소시킨다. 물론 일부 경제학자들과 사회학자들은 네트워크의 부정적 역할 및 여성의 직업참여로 인한 친목활동의 감소와 같은 현실적인 문제를 제시하면서 사회적자본의 유용성을 비판하기도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간관계로 인해 발생하는 여러 사회적 갈등과 충돌 또는 비효율성의 문제는 사회적자본의 필요성을 더욱 강조할 수밖에 없으며, 오히려 부정적 역할을 했던 네트워크를 사회에 신뢰와 협력의 관계를 향상시키기 위한 주요한 매개체로서의 네트워크로 전환할 수 있는 것이 사회적자본이다.

이와 함께 사회적 네트워크는 호혜성에 기초한 사회규범을 촉진하고 남을 속이거나 배신하는 행위가 어려워 사회협력을 증진시키며(Knight, 2001), 이러한 네트워크가 발달된 사회는 구성원들끼리 소통과 정보의 이동이 쉽다. 따라서 북부 이탈리아의 경우 효율적인 정부가 생겨나고 경제가 발전하는 원동력이 되었으며, 캘리포니아의 실리콘 벨리의 수평적 네트워크는 경쟁 관계에도 불구하고 기술이나 경영 정보의 공유를 통해 협력관계를 발전시켜 실리콘 벨리의 성공을 이끄는 주요한 원동력이 되었다.

2. 사회적 자본과 자발적 참여 네트워크의 필요성

1) 자발적 참여 네트워크의 개념

사회적자본은 위에서 언급한 것 같이 그 개념을 네트워크로 이해하는 학자들이 많으며 특히 Putnam(1993)은 특히 자발적인 단체 활동을 통해 수평적인 인간관계가 활성화 되면 사회적 신뢰와 협력의 수준이 증진된다고 설명하고 있다. 즉 사회 구성원들이 단체활동을 통해 서로 신뢰하고 협력하는 방법을 배움으로써 사회적자본이 증진된다는 것이다.

〈표 2-2〉 Putnam의 사회적자본 지수

구분	구성요소
커뮤니티 단체 활동	<ul style="list-style-type: none"> 지역사회기관 위원회 참여 클럽이나 단체의 간부로 활동 인구 천 명당 시민사회단체 수 클럽 미팅에 참여한 수 평균 단체 구성원 수
공공업무 참여	<ul style="list-style-type: none"> 대통령 선거 참여율 지역사회나 학교의 공청회에 참여
자원봉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인구 천 명당 비영리 단체의 수 커뮤니티 활동에 봉사한 횟수 자원봉사한 횟수
비공식적 사회활동	<ul style="list-style-type: none"> 친구와 시간을 많이 보냄 집에서 여가를 즐긴 횟수
사회적 신뢰	<ul style="list-style-type: none"> 대부분의 사람을 신뢰할 수 있다고 응답 대부분의 사람이 정직하다고 응답

자료 : Putnam(2000).

〈표2-2〉은 Putnam의 사회적자본 측정을 위한 지수는 주로 네트워크 활동으로

이루어졌으며, 신뢰는 14개 요소 중 2개로 비교적 적은 비중을 차지한다. 특히 단체의 종류에 관계없이 참여한 단체의 수가 많거나 활동횟수가 많을수록 사회적자본이 높다고 가정한 것이 특징이다. 풍부한 단체 활동이 구성원들에게 협동심과 결속력을 심어준다고 보기 때문이다.

사회적 자본은 네트워크 내에 속해 있는 구성원들에게 긍정적인 외부성(positive externality)을 창출해야 하고, 그 외부성은 신뢰, 규범, 상호기대 등 공유의 가치에 의해서 실현될 수 있으며, 그러한 공유의 가치는 사회적 네트워크에 바탕을 둔 비공식조직, 즉 자발적 참여 네트워크를 통해 나타난다고 할 수 있다(삼성경제연구소, 2010).

각종 시민단체나 종교, 친목단체의 활성화가 경우에 따라서 사회협력 증진에 긍정적인 효과를 미칠 수 있는 이유이다. 세계가치관조사의 국가별 단체가입 데이터를 이용한 한 연구는 교육·예술·문화 단체, 봉사단체, 청소년 단체, 스포츠·여가 단체 등 비공식적 단체의 가입 비중이 높은 국가일수록 일반적 신뢰 수준이 높은 것을 발견했다(Knack, 2003). 이들은 Putnam의 사회협력에 긍정적인 영향을 끼친다고 주장한 단체들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자발적 참여 네트워크는 사회적자본인 신뢰와 협력을 향상시킬 수 있는 사회적 네트워크이며, Putnam이 정의하고 있는 수평적 인간관계를 축으로 하는 비공식적이고 자발적인 단체활동을 의미한다.

2) 한국사회의 갈등과 자발적 참여 네트워크의 필요성

한국 사회는 사회적 갈등과 분열이 심한 사회이다(이동원, 2009). 한국은 소득 분포, 연고주의, 노사문제, 이념갈등 등 여러분야에서 사회분열 현상이 심각하게 나타나고 있고, 이 중에서도 특히 소득계층 간 분열 문제가 심각하다. 유인진(2008)의 여론 조사에 의하면 대다수의 응답자(35.5%)가 계층 간 분열을 한국 사회에서 가장 심각한 사회갈등의 원인으로 지적하고 있었으며, 그 다음으로는 지역갈등(22.7%), 노사갈등(19.7%), 이념갈등(8.9%)이라고 응답하였다. 전영평(2005)의 조사에 따르면 설문조사 응답자의 47%가 이러한 사회분열의

원인으로 “무분별한 자기이익 추구”를 지적하고 있다. 즉 계층이나 이익집단 등의 사회적 지위간의 차이가 사회분열의 원인으로 인식하고 있는 것이다. 또 이러한 분열은 향후 10여년 동안 더욱 가속화되고 심화 될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김태홍 외, 2005).

한국사회의 계층 간 또는 사회적 지위의 차이로 인한 갈등은 혈연, 지연, 학연과 연결되어 있으며, 이를 기반으로 폐쇄적 네트워크를 형성하고 이러한 네트워크는 사회전반에 불신과 소득 분배 문제를 양상하고 있다(Fukuyama, 1995). 이러한 갈등은 개인과 개인사이뿐만 아니라,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사이에서 정부시책을 집행하고 논의하는 과정에서도 자주 나타나고 있다. 최근 밀양의 송전탑 설치와 관련된 주민과의 갈등사례뿐만 아니라 의료원사태와 같은 경우를 보면 사회의 갈등이 심화되고 있으며, 주요 공공정책에 대한 국민적 합의가 늦어지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Putnam(1993, 2000)은 자발적 참여 네트워크를 통한 단체활동이 수평적인 인간관계를 활성화시키며, 비공식적 교제에서 직장 동료나 종교모임의 구성원과 보내는 시간이 많을수록 사회의 신뢰와 협력의 수준이 높아진다고 설명하고 있다. 예를 들어 실리콘 벨리의 ‘런치 2.0’이 대표적인 예이다. ‘런치 2.0’은 실리콘 벨리에서 근무하는 4명의 엔지니어들이 구글, 야후 등 주변 IT 업체들의 구내식당에서 공짜 점심을 즐기던 것이 계기가 되어 시작되었다(삼성경제연구소, 2010). 경쟁관계의 회사임에도 불구하고 함께 만나 점심을 먹으면서 인적교류를 넓히고 업계 정보를 서로 교환하는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비공식적 네트워크가 형성되었고, 이러한 자발적 참여 네트워크는 기업 간 저용 공유 및 교류, 협력을 통해 실리콘 벨리에 거주하는 업체들의 사회적 자본 형성에 크게 기여하고 있는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 사회와 같이 혈연, 지연, 학연과 같은 연고주의가 강한 경우 폐쇄적 네트워크가 발달하여 자발적 단체활동이 신뢰로 이어지는 경우가 어렵다. 왜냐하면 갈등이 심화된 사회는 각종 네트워크의 구성원에 특정지역 출신이나, 계층의 제약이 있기 때문이다. 즉 다양한 분야의 다양한 계

층의 사람들이 서로 모여 자발적으로 신뢰하고 협력하는 방법을 습득하지 못하는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네트워크는 아무리 친목단체라고 해서 자신이 속한 집단의 이해를 지키기 위해서 다른 집단과 경쟁하게 되며 사회적 신뢰를 오히려 저해하는 원인이 될 수 있다.

따라서 우리 사회는 갈등과 불신을 협력과 신뢰의 관계로 개선시키기 위해 사회적자본을 확충하려는 노력을 해야 하며, 특정 계층의 이익을 대변하는 폐쇄적 형태의 네트워크가 아니라 개인이 소속되어 있는 지역의 주민들과 정보를 공유하고 친목을 도모할 수 있는 자발적 참여 네트워크로의 질적 개선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 그리고 지방정부 역시 지역주민과의 신뢰와 협력관계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자발적 참여 네트워크를 활용할 수 있는 정책과 함께 사회적자본과의 연계성을 높이기 위한 정책적 지원도 해야 할 것이다.

제3장 대전광역시 자발적 참여 네트워크 측정연구

- 제1절 자발적 참여 네트워크 측정을
위한 이론적 근거
- 제2절 실증조사분석

제3장 대전광역시 자발적 참여 네트워크 측정연구

제1절 자발적 참여 네트워크 측정을 위한 이론적 근거

사회적자본에 대한 중요성을 인식한 대전광역시는 시의 적극적인 관심과 지원 아래 사회적자본 확충 실천개념과 전략방안을 수립하고, 조례제정과 사회적자본연구센터 및 지원센터 등 다양한 분야에 있어서 협력 워킹그룹 구성, 대전형 좋은 마을 만들기 공모사업 등을 잇달아 추진하고 있다. 특히 대전시의 사회적자본의 수준을 측정하기 위한 사회적자본 측정지표를 개발하였고, 분석 결과에 의하면 대전시의 네트워크 수준이 높게 나타난 것을 알 수 있다(대전발전연구원, 2013).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다른 부문의 사회적자본보다 네트워크 부문의 수준이 높지만, 실제로 대전시의 네트워크가 지역사회의 신뢰와 협력에 어떠한 상관관계를 갖고 있는가를 분석하여 대전시의 사회적자본의 수준과 실태를 파악하기 위해 실증적 조사를 하고자 한다. 이를 위한 이론적 근거를 다음과 같이 제시한다.

1. 연구설계

사회적자본은 지난 20여 년 동안 연구되어왔지만 사회적 네트워크가 실제로 구성원들의 신뢰나 참여도를 향상시켜 지역사회 발전에 어느 정도 기여하고 있는가와 관련된 자료나 증거가 부족한 것도 사실이다. 그러나 최근 영국을 중심으로 사회적자본을 연구하는 신진학자들은 실증적 연구를 위해서 개발한 Position Generator(PG) Methodology를 사용하여 사회적자본을 측정하여 다양한 연구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PG는 사회적관계로써의 네트워크에서 개개인의 문화적 요인에 기반한 사회적 지위(위치)가 사회적자본인 네트워크 안에서 어

떠한 변수를 생성하고, 이러한 변수가 개개인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거나 지역 사회의 발전을 이끌 수 있는가를 측정하는 다양한 방법들을 포함하고 있다. 이러한 연구는 무형의 자본인 사회적자본이 실제생활에서 개인의 삶의 질의 향상과 함께 지역사회의 발전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고 있다는 것을 계량적으로 증명하고 있다(Lin & Erickson, 2012)

이에 본 연구에서는 PG를 활용한 다양한 기존의 연구에서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방법으로 우선 개개인의 나이, 성별, 직업, 경제수준, 학력을 중심으로 개인의 사회적 지위에 대한 대전시 주민들의 인식을 조사하고, 사회적자본인 네트워크안에서의 개인의 지위(네트워크 안에서의 의사결정의 영향력의 정도)에 대한 인식을 조사하고자 한다.

우리 사회뿐만 아니라 대다수의 나라에서는 직업은 개인의 삶과 사회적 지위와 밀접한 관련이 있다. 직업으로 인해 수입, 교육, 직장 내 영향력과 같은 자원의 소유가 달라지고, 이러한 자원은 사회적자본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Erickson, 2012). Blau와 Duncan(1967)은 산업사회로 전환되면서 교육의 수준에 따라 사회적으로 성공한 직업을 가질 기회가 높아지고 있음을 실증적 조사를 통해 증명한 바 있다.

그러나 본 연구에서는 ‘직업’뿐만 아니라 한국의 문화적 특성을 고려하여 성별과 나이를 측정변수로 포함시켰다. 최근 일본과 중국의 사회적자본을 연구하는 학자들은 유럽과 미국과는 다른 유교적 문화로 인한 문화적 특성을 고려한 변수를 연구에 포함시키고 있으며, 특히 ‘성’과 ‘연령’이 대표적 측정변수로 연구되어지고 있다. Lai(1998), Miyata(2002), Tindall(2003)는 PG를 활용하여 ‘성’에 따른 사회적자본을 측정하고 있는데, 일본, 중국과 같은 유교적 문화가 잔재하는 나라에서는 교육뿐만 아니라 성별에 따라 직장뿐만 아니라 일상적인 다양한 조직에서 사회적 위치가 남성과는 다르게 평가되어진다고 밝히고 있다. PG를 사용하여 직업에 따라 인식되고 있는 개인의 사회적지위가 사회적자본인 네트워크안에서도 동일하게 인식되고 있는가의 여부와 함께 직업과는 상관없이 네트워크 안에서 구성원들끼리 신뢰나 배려와 같은 사회적자본을 형성하고 있는지를 연구할 것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사회에서 격

차를 느끼게 하는 일반적 요소인 직업의 차이가 사회적자본인 네트워크 안에서 그러한 격차를 좁혀 네트워크 안에서 개개인들끼리 신뢰도와 함께 지역사회의 신뢰도와 상관을 밝혀 사회적자본인 네트워크의 실효성 및 효과성을 살펴보기 위한 연구모형을 다음과 같이 제시한다.

2. 연구 분석의 틀

Position Generator(이후 PG) 방법론을 사용하여 사회 계층을 구분하는 사회적 지위의 결정요인으로써 나이, 성별, 직업, 경제수준, 학력을 구분하였다. 사회적 지위 결정요인에 대한 응답자들의 개인 인식을 측정하여 5가지 중에 어떤 결정요인이 사회적 지위를 결정하는지와 관련해서 우선순위를 알아봄과 동시에, 자발적 참여 네트워크 안에서도 이러한 사회적 지위가 우선순위를 갖는 가도 측정하였다.

직업, 경제수준, 학력의 경우 위에서 언급했듯이 사회적 지위를 측정하는 PG의 일반적 분류방법이며 나이와 성별의 경우 아시아권의 사회적자본을 연구하는 학자⁴⁾들에 의해 추가로 연구되어지고 있는 결정요인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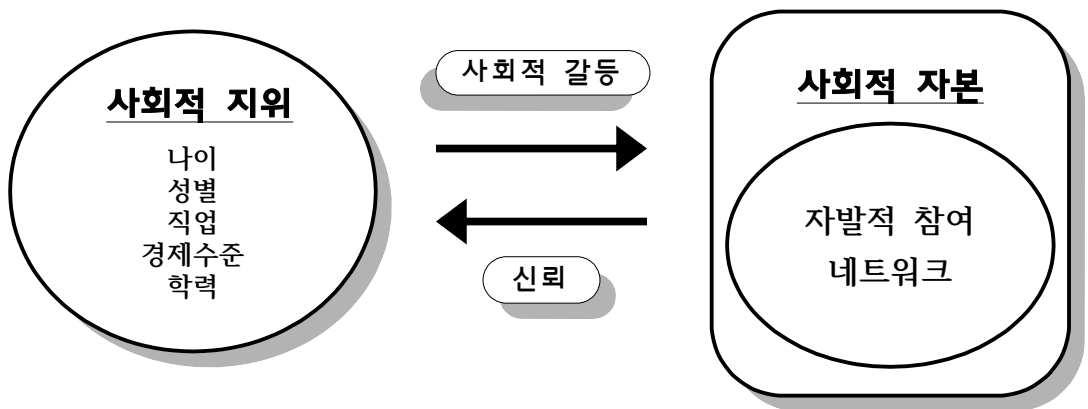
우선 사회적 지위를 결정하는 5가지 결정요인이 사회의 갈등을 유발하는 계층의 차이를 형성하며 이러한 차이는 사회적자본인 자발적 참여 네트워크 안에서 어떻게 사람들에게 인식되는가를 조사하였다. 그리고 자발적 참여 네트워크 안에서는 어떠한 결정요인들이 의사결정과정에서 우선순위를 결정하여 네트워크 내에서 영향력을 형성하는지도 조사하여 사회적 지위와 비교분석하였다. 이와 함께 자발적 참여 네트워크가 지역사회의 신뢰에 어떠한 영향을 주는지를 조사하여, 자발적 참여 네트워크와 신뢰와의 관련성도 조사하였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다섯 가지의 사회적 지위 결정요인을 중심으로 지역주민의 인식을 조사하고, 이러한 사회적 지위가 자발적 참여 네트워크 내에서

4) Tindall(2003), Lin(2005), Fu(2007), Lai(2012)등이 성(gender), 나이 등과 아시아 문화적 특성에 따른 사회적 지위 결정요인을 강조하고 있다.

다르게 인식되어 지역의 신뢰를 향상시킬 수 있을 것이라는 전제를 중심으로 설계하였고, 조사하였다. 실증적 조사를 위해서 아래의 분석 틀을 다음과 같이 제시하였다.

<그림 3-1> 연구 분석 틀



연구 분석 틀에서는 실증적 조사 설계를 위해서 사회적 지위를 구분하였고, 계층 간의 차별과 갈등을 유발하는 사회적 지위가 자발적 참여 네트워크에서의 영향력을 결정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지 않을 것이라는 PG 방법론을 사용하여 설계하였다. 그리고 오히려 이러한 요인의 영향력이 자발적 참여 네트워크 내에서 약해지고, 다른 요인으로 인한 네트워크 내의 '지위'가 결정된다. 결과적으로 자발적 참여 네트워크는 사회적 지위의 결정요인을 약화시켜 갈등이나 계층 간의 불화에 긍정적인 역할을 하고, 지역사회 신뢰를 향상시킬 수 있을 것이라는 것을 연구 분석의 근거로 제시하였다. 따라서 다음 절에서는 이러한 분석 틀을 중심으로 설문지를 작성하였으며, 실제로 대전광역시에서는 사회적 지위와 자발적 참여 네트워크가 어떠한 상관관계가 있는지를 실증적으로 분석하였다.

제2절 사회적자본 측정지표 실증조사분석

1. 조사대상 표집

대전광역시의 사회적자본 측정을 위하여 설문지를 통한 자료수집을 실시하였다. 연구목적에 위하여 대전광역시에 거주하는 시민들을 대상으로 사회적 지위와 자발적 네트워크 영역을 평가하기 위한 20문항의 설문조사를 실시하였고 SPSS 통계패키지를 이용하여 자료를 분석하였다. 설문조사는 2014년 7월에 실시하였고, 대전광역시 5개구(동구, 중구, 서구, 유성구, 대덕구)에 거주하는 시민들에게 배부되었고, 705부의 설문지를 회수하였다.

설문의 응답자들을 먼저 성별, 연령, 학력 및 직업별로 살펴본 결과, <표 3-1>과 같다. 성별로는 전체 705명 중에 남성이 346명(49.1%), 여성이 359명(50.9%)명으로 응답자의 성별은 거의 같은 분포로 나타나고 있다. 연령은 20대는 121명(17.2%), 30대 153명(21.7%), 40대 162명(23.0%), 50대 148명(21.0%), 60대 106명(15.0%), 70대 14명(2.0%), 80대 1명(0.1%)의 분포를 보인다. 특히 자발적 참여 네트워크를 적어도 하나 이상 가입한 대상을 중심으로 선별하였고, 특히 지역활동(반상회, 학부모회, 기타 지역모임)에 참여가 가능한 대상을 조사하여 유의미성을 높이고자 20대 미만에 대해서는 조사설계에서 제외시켰다. 응답자의 학력은 중졸이하 35명(5.0%), 고졸 210명(29.8%), 대졸 406명(57.6%), 대학원졸 52명(7.4%)의 분포를 보였다. 거주지는 동구 115명(16.3%), 중구 122명(17.3%), 서구 200명(28.4%), 대덕구 106명(15%), 유성구 162명(23.0%)으로 비슷한 수준의 분포를 보이고 있다.

<표 3-1> 성별 · 연령 · 학력 · 직업 · 거주지별 통계

구분		빈도(단위: 명)	분포(단위: %)
성별	남성	346	51.6
	여성	359	48.4
	합계	705	100.0
연령	20대	121	17.2
	30대	153	21.7
	40대	162	23.0
	50대	148	21.0
	60대	106	15.0
	70대이상	15	2.1
	합계	705	100.0
학력	중졸이하	37	5.3
	고졸	210	29.8
	대학교졸(전문대포함)	406	57.6
	대학원졸	52	7.4
	합계	705	100.0
직업	농업·어업·임업	4	0.6
	자영업	136	19.3
	판매업·서비스업	103	14.6
	기능직	50	7.1
	사무직	157	22.3
	경영·관리직	15	2.1
	전문·자유직	104	14.9
	가정주부	101	14.3
	은퇴·퇴직자	26	3.7
	무직	7	1.0
	기타	0	0
합계	705	100.0	
거주지	동구	115	16.3
	중구	122	17.3
	서구	200	28.4
	유성구	162	23.0
	대덕구	106	15.0
	합계	705	100.0

다음으로 응답자의 월평균 가구소득, 주거형태, 대전시 거주기간, 주택소유 형태에 관한 사항은 <표3-2>와 같다. 응답자의 월평균 가구소득은 200만원 이하 43명(6.1%), 400만원이하 209명(29.6%), 600만원이하 262명(37.2%), 600만원 이상 191명(27.1%)의 분포를 보였고, 마지막으로 응답자의 77% 정도가 같은 동네에 5년 이상 동안 거주한 것을 알 수 있었다.

<표 3-2> 월평균 가구소득 · 주거형태 · 거주기간 · 주택소유별 통계

구분		빈도(단위: 명)	분포(단위: %)
월평균 가구소득	199만원이하	43	6.1
	200~299만원	91	12.9
	300~399만원	118	16.7
	400~499만원	110	15.6
	500~599만원	152	21.6
	600~699만원	66	9.4
	700만원이상	125	17.7
	합계	705	100.0
주거형태	주상복합	26	3.7
	단독주택	115	16.3
	아파트	454	64.4
	다세대·다가구·연립주택	107	15.2
	기타	3	0.4
	합계	705	100.0
대전시 거주기간	5년이하	163	23.1
	5년~10년 미만	143	20.3
	10년~15년미만	151	21.4
	15년~20년미만	85	12.1
	20년~25년미만	83	11.8
	25년~30년미만	24	3.4
	30년이상	56	7.9
	합계	705	100.0
주택소유 형태	자택	518	73.5
	전세	142	20.1
	월세	45	6.4
	합계	705	100.0

2. 자발적 참여 네트워크 측정 결과

1) 자발적 참여 네트워크에 대한 인식여부 측정 결과

응답대상자인 대전시 거주민들 대상으로 주로 소속된 지역모임이 있는지에 대해 질문한 결과, 친목(계)모임 53.0%, 동창회 17.0%, 취미·문화모임(동호회) 11.9%, 종교단체 9.7%, 학부모모임 7.4% 등의 순으로 응답한 것으로 나타났다 (<표3-3> 참조).

<표 3-3> 대전광역시 지역주민의 주된 소속 모임

귀하께서 소속된 지역모임이 있으시다면, 두 개만 고르세요		
항목	빈도	퍼센트
친목(계)모임	374	26.5
학부모모임	78	5.5
동창회	236	16.7
향우회	32	2.3
취미·문화모임(동호회)	216	15.3
복지만두레	15	1.1
봉사모임	58	4.1
시민단체	13	0.9
정치단체	6	0.4
종교단체	156	11.1
기타	6	0.4
합계	1410	100.0

아울러 어떻게 위에 선택한 지역모임의 구성원이 되었는지의 이유가 무엇인지 질문한 결과, 자발적인 지원에 의해서라는 응답이 81.6%, 가족이나 지인의

권유에 의해서라는 응답이 15.2%, 의무에 의해서라는 응답이 3.3%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질문에서 제시되고 있는 네트워크가 자발적 참여 네트워크임을 보여주고 있다.

참여하고 있는 지역모임의 구성원들의 수준을 살펴 본 결과 다음과 같다. 소속된 모임에서 직업이 비슷한 구성원의 유무에 관해서, 비슷한 직업의 구성원이 있다고 응답한 사람은 29.1%이었고, 학력의 경우 32.9%, 경제수준의 경우 26.4%이상이 동일한 수준이라고 응답하였다. 즉 직업, 학력, 경제수준이 동일한 수준이 아니라고 말한 응답자들은 각각 70%이상이었고, 이를 통해 자발적 참여 네트워크에서 구성원들의 직업, 학력, 경제수준은 중요한 변수가 아님을 알 수 있다(<표3-4 참조>).

<표 3-4> 소속된 모임에서 직업, 학력, 경제수준의 차이

귀하께서 참여하고 계신 지역모임의 구성원들은 아래의 수준이 동일합니까?		
항목	빈도('아니오'라고 응답)	퍼센트
직업	500(705명 중)	70.9
학력	473(705명 중)	67.1
경제수준	519(705명 중)	73.6

지역모임에 참여하면서 가장 좋은 점은 무엇인가에 대해서는 응답자의 34.0%가 '정신적·심리적으로 안정이 된다'라고 응답하고, 27.4%는 '즐겁다', 20.4%는 '현재 나의 삶의 질이 향상되었다'라고 응답하였다. 이러한 응답결과는 응답자들의 지역모임을 긍정적인 것으로 인식하는 성향이 강하지만 소속모임이 지역사회나 지역참여활동과는 큰 연관성이 없다고 보고 있음을 알 수 있다(<표3-5> 참조).

<표 3-5> 지역모임을 통해 얻은 효과에 대한 인식

귀하께서 지역모임에 참여하시면서 가장 좋은 점은 무엇입니까?		
항목	빈도	퍼센트
현재 나의 삶의 질이 향상되었다	144	20.4
미래 나의 삶에 도움이 될 것 같다	87	12.3
지역사회에 도움이 될 것 같다	41	5.8
정신적·심리적으로 안정이 된다	240	34.0
즐겁다	193	27.4
합계	705	100.0

새로운 지역모임에 참여한다면, 어떤 구성원들이 중요변수인가를 묻는 질문에는 40%가 ‘같은 연령대’, 29.5%가 ‘구성원은 전혀 중요하지 않다’라고 답변하였다. 직업, 학력, 경제수준 등은 중요 구성항목이 아니지만, 대전시의 경우 나이는 자발적 참여 네트워크의 중요변수임을 알 수 있다(<표3-6> 참조).

<표 3-6> 지역모임에 선호하는 구성원에 대한 인식

귀하께서 새로운 지역모임에 참여하신다면 어떤 구성원들이 중요합니까?		
항목	빈도	퍼센트
이웃	87	12.3
같은 연령대	282	40.0
같은 학력	14	2.0
비슷한 경제수준	65	9.2
같은 직업	49	7.0
구성원은 전혀 중요하지 않다	208	29.5
합계	705	100.0

소속된 모임에서 구성원들 사이의 신뢰도를 ‘소속모임에서 돈을 빌려 줄 사람이 있다고 생각합니까’라는 질문으로 측정한 결과 응답자의 25%만이

‘그렇지 않다’라고 응답하였다. 즉 모임 안의 구성원들에게 신뢰가 높게 나타남을 알 수 있었다. ‘돈을 빌려주는 것’으로 신뢰를 측정하는 것은 World Bank의 사회적자본 연구 논문에서 개발한 사회적자본의 신뢰도 측정지표 중의 하나이다. 신뢰에는 다양한 항목이 포함되지만, 자본주의 사회에서 금전의 가치가 높으며, 거래상의 신뢰도가 중요한 항목이기 때문이다(World Bank, 2012).

또한 참여하고 있는 지역모임의 구성원에게 어려운 일이 생겼을 때 모임의 구성원들이 도와줄 수 있다고 생각하는 가에 대한 질문에는 응답자의 70% 이상이 ‘그렇다’와 ‘매우 그렇다’라고 응답하였고, 6%만이 ‘그렇지 않다’라고 응답하였다. 여기에서 ‘어려운 일’은 갑작스런 가족 구성원의 사망이나, 갑작스런 실직이나 병으로 인한 금전적 어려움, 또는 자연 재해로 인한 재산피해 등으로 지정하였다. 이 질문 역시 국내외 문헌에서 신뢰를 측정하는 사회적자본 측정지표로 사용되고 있다.

소속된 모임에서의 영향력을 측정하기 위해서 ‘중요한 의사결정과정’의 영향력에 대한 질문에 응답자의 41%가 ‘그렇다’와 ‘매우 그렇다’라고 응답하였고, 14%만이 ‘그렇지 않다’라고 응답하였다. 대전시의 사회적자본 측정지표를 조사했던 대전발전연구원(2013)의 자료를 살펴보면, 대전시 주민의 80%이상의 지역정책과 관련된 의사결정과정에 영향력이 없다고 응답한 것과 대조적으로 소속된 모임에서 본인의 영향력이 강하다고 응답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소속된 모임에서 영향력이 많다고 느끼는 이유를 묻는 항목에서는 응답자의 모임 참여기간, 나이, 경제수준 순으로 응답하였다. 이 항목과 관련해서는 제4장에서 자세하게 분석할 것이다.

지역모임에 참여 후 이웃에 대한 신뢰가 모임 참여 전보다 높아졌다고 생각하는 가에 대한 질문에는 응답자의 53%가 ‘그렇다’, ‘매우 그렇다’라고 응답하고, 6%만이 ‘그렇지 않다’라고 응답하였다. 즉 자발적 참여 네트워크가 신뢰의 향상과 밀접한 관련이 있음을 알 수 있다(<표3-7> 참조).

<표 3-7> 지역모임 참여 이후 신뢰의 변화

귀하께서 지역모임에 참여 후 이웃에 대한 신뢰가 참여 전보다 높아졌다고 생각하십니까?		
항목	빈도	퍼센트
전혀 그렇지 않다	5	0.7
그렇지 않다	41	5.8
보통이다	278	39.4
그렇다	338	47.9
매우 그렇다	43	6.1
합계	705	100

소속된 모임과 다른 모임과의 교류에 관한 질문에는 응답자의 45%가 ‘교류가 없다’라고 응답하였고, 31%는 ‘교류가 있다’라고 응답하였다. 소속모임이 다른 지역모임과 활발한 교류활동을 하고 있지 않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하지만 지역발전과 지역모임과의 상호연관성을 묻는 질문에 응답자의 80% 정도가 긍정적인 응답을 하였다. 즉 소속모임과 지역발전과 연계해서 생각하는 것에 긍정적인 생각을 갖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표3-8> 참조).

<표 3-8> 지역발전과 지역모임과의 상관관계여부

귀하께서는 지역발전을 위해 지역모임활동에 꼭 참여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항목	빈도	퍼센트
전혀 그렇지 않다	17	2.4
그렇지 않다	131	18.6
보통이다	286	40.6
그렇다	236	33.5
매우 그렇다	35	5.0
합계	705	100.0

2) 사회적 지위 결정요인 및 지역사회에 대한 인식여부 측정결과

응답자의 사회적 지위가 높다고 생각하는 가에 대한 질문에는 ‘그렇지 않다’가 40%정도였으나, 10%정도만이 ‘그렇다’라도 응답하였다. 즉 지역사회에서 느끼는 본인의 지위에 대한 우선순위가 자발적 참여 모임과는 상대적으로 큰 차이가 나고 있음을 알 수 있다(<표3-9> 참조).

〈표 3-9〉 응답자 스스로 인지하는 사회적 지위 수준

귀하께서는 지역사회에서 귀하의 사회적 지위가 높다고 생각하십니까?		
항목	빈도	퍼센트
전혀 그렇지 않다	39	5.5
그렇지 않다	243	34.5
보통이다	352	49.9
그렇다	66	9.4
매우 그렇다	5	0.7
합계	705	100.0

〈표 3-10〉 사회적 지위 결정요인에 대한 인식

귀하께서는 사회적 지위를 결정하는 요인 중에서 무엇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항목	빈도	퍼센트
직업	238	33.8
학력	63	8.9
경제수준	351	49.8
성별	8	1.1
나이	45	6.4
합계	705	100.0

사회적 지위를 결정하는 요인 중에서 무엇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가에 대해서는 응답자의 50%가 '경제수준', 34%가 '직업'이라고 응답하였다(<표 3-10> 참조). 이러한 답변은 소속된 모임에서 위치에 대한 우선순위를 결정짓는 요인에 대한 답변과는 차이가 있으며, 소속모임보다 지역사회에서 만나는 지역주민에 대한 계층 간의 차이가 훨씬 크게 인식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지역사회에서 직장, 성별, 나이로 인해 불이익을 경험한 적이 있는가에 대한 질문에는 응답자의 88%정도가 '아니다'라고 응답했다. 즉 계층을 구분하는 사회적 지위 결정요인에 대해서는 경제적 수준, 직업과 같은 것에 기인한다고 여기지만, 실제로 이로 인한 불이익을 경험한 적이 없음을 알 수 있다.

이외에도 지역사회에 도움을 줄 수 있는 봉사활동이나, 재정적 지원을 할 것인가에 대한 질문에서는 응답자의 80%이상이 긍정적인 답변을 하였고, 20% 정도는 '그렇지 않다'라는 부정적인 응답을 하였다. 그러나 대전발전연구원(2013)의 설문결과에 의하면 실제 대전시 주민의 50%정도가 봉사활동에 전혀 참여해 본 적이 없다라고 응답하고 있다. 따라서 참여하고 있지는 않지만 지역사회를 위해서는 봉사활동에 참여하고 싶어하는 응답자가 많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대전시의 재정적 지원 및 정책적 지원을 받는 자발적 참여 모임에 참석하거나 알고 있는가에 대한 질문에는 응답자의 70%이상이 모르거나 참여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이러한 모임이 지역사회의 발전에 도움이 된다면 참여하고 싶다는 긍정적인 답변이 응답자의 70%이상이었다.

제4장 대전광역시 자발적 참여 네트워크의 수준과 정책적 제안

제1절 대전광역시 사회적 지위 및
자발적 참여네트워크 수준

제2절 사회적자본 확충을 위한 자발적
참여 네트워크 활성화방안

제4장 대전광역시 자발적 참여 네트워크 수준과 정책적 제언

제1절 대전광역시 사회적 지위 및 자발적 참여 네트워크의 수준

일반적인 지역사회에서는 나이, 성별, 직업, 경제수준, 학력 등의 사회적 지위 결정요인으로 작용하여 다른 상대방과의 계층을 형성하게 된다(Lin, 2012). 그리고 이러한 요인은 그 나라의 문화와 상황에 따라 차별적인 사회적 계층을 형성하게 되며, 결국 이로 인한 사회적 갈등과 불신이 심화되고 있음을 제2장에서 논의한 바 있다. 그러나 제3장의 실증조사를 통해서 자발적 참여 네트워크 안에서 소속 구성원들 스스로 인지하는 네트워크 내 영향력의 우선순위와 지역사회에서 인지하는 사회적 지위로써의 우선순위와의 차이가 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자발적 참여 네트워크에서는 구성원들끼리 신뢰가 높게 나타나고 있었으며, 모임에 참석하는 응답자들의 경우 지역사회를 위한 협력이나 봉사 활동에 대해 긍정적인 답변이 많았다. 따라서 실증조사결과에 따라 사회적 지위를 가진 개인들이 자발적 참여 네트워크 안에서는 어떠한 관계를 형성하는가를 분석하여 대전광역시의 자발적 참여 네트워크의 수준을 측정하고자 한다.

1. 사회적 지위와 자발적 참여 네트워크 비교 분석

대전광역시의 주민들은 ‘지역사회에서 본인의 지위는 어느정도 일까?’라는 질문에 응답자의 약 10%정도가 ‘높다’라고 답변하였다(<표4-1> 참조). 즉 대부분이 자신의 사회적 지위를 높게 보고 있지 않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자발적 참여 네트워크에서의 본인의 ‘지위’를 묻는 질문에서는 응답자의 40%이상이 ‘높다’라고 답변하였다. 이를 통해 알 수 있는 것은 일반적인 사회에서는 타인에 대한 계층 간의 격차를 인식하고 있지만, 실제로 네트워크 내에서는 격차에 대한 인식이 적게 나타나고 있다는 것이다.

<표 4-1> 지역사회 및 자발적 참여 네트워크에서 나의 지위에 대한 인식차이

단위: %

구분 \ 항목	매우 높음	높음	보통	낮음	매우 낮음	합계
지역사회 내의 나의 지위	0.7	9.4	49.9	<u>34.5</u>	5.5	100.0
자발적 참여 네트워크 내의 나의 지위	5.7	<u>36.9</u>	42.6	12.2	2.7	100.0

사회적 지위를 결정하는 요인으로 ‘경제수준’, ‘직업’을 뽑았으며, 자발적 참여 네트워크에서 영향력의 우선순위를 결정하는 요인으로서 ‘모임참여기간’, ‘나이’, ‘경제수준’ 순으로 응답하였다. 자발적 참여 네트워크의 경우 대전발전연구원(2013)의 연구결과 네트워크 내 지위와 영향력의 주요 결정요인으로 ‘모임참여기간’을 대다수가 응답하였기에 이번 조사에서도 5가지 결정요인 외에 모임참여기간을 추가하였다. 지역사회의 경우 ‘거주기간’ 항목을 포함시키지 않은 이유는 상대방의 거주기간을 잘 모르는 응답자가 많고, PG에 의한 방법에 거주기간과 사회적 지위를 인식하는 것의 상관관계를 낮게 분석하고 있기 때문이다(Lin, 2012).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지위의 우선순위를 비교하면 <표4-2>와 같다. 표에서 알 수 있듯이 두 영역에서 똑같이 조직에서 차지하는 지위의 우선순위를 결정하는 데 있어 요구되는 요인이 다르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응답자들은 지역사회에서는 ‘경제수준’과 ‘직업’을 사회적 지위의 우선순위를 결정하는 주요 요인으로 보고 있었다. Position Generator에 의해 구분된 다양한 요인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대전광역시외의 경우 ‘경제수준’과 ‘직업’이 사회적

지위를 결정하는 요인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와는 다르게 자발적 참여 네트워크 안에서는 ‘모임참여기간’이 가장 중요하다고 38%가 응답하였고, ‘경제수준’과 ‘나이’의 항목은 각각 16%정도밖에 응답하지 않았다.

<표 4-2> 지위 우선순위(Position Priority)를 결정하는 요인에 대한 인식차이

단위: %

구분 \ 항목	직업	학력	경제수준	성별	나이	모임참여기간	합계
자발적 참여 네트워크	9.4	7.3	16.8	4.2	16.6	45.7*	100.0
지역사회	33.8	8.9	49.8	1.1	6.4	0.0**	100.0

:자발적 참여 네트워크의 경우 모임참여기간을 응답항목에 추가하였음(45.7%)

또한 실제적으로도 자발적 참여 네트워크에서의 구성원들 사이에서는 ‘경제수준’과 ‘직업’이 동일한 수준으로 나타나지 않았다. 약 70%이상의 응답자들은 자발적 참여 네트워크 안의 구성원들이 ‘직업’, ‘학력’, ‘경제수준’이 모두 달랐다고 응답했다(<표 4-3> 참조). 즉 소속되어 있는 자발적 참여 네트워크의 구성원들은 ‘직업’, ‘학력’, ‘경제수준’과 같은 사회적 지위 결정요인이 서로 간에 동일하지 않게 나타났다.

<표 4-3> 자발적 참여 네트워크 안에서 구성원들 사회적 지위 수준

단위: %

구분 \ 항목	직업이 다르다	학력이 다르다	경제수준이 다르다
자발적 참여 네트워크	70.9	67.1	73.6

따라서 대전광역시 주민들은 지역사회에서는 ‘경제수준’과 ‘직업’으로 인한 사회적 지위의 차이를 인지하고 있으나, 실제로 자발적 참여 네트워크

안에서는 이러한 요인들이 중요하게 작용하지 않고 있으며, 오히려 본인들의 지위나 영향력에 긍정적인 인식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2. 자발적 참여 네트워크와 신뢰관계 비교 분석

자발적 참여 네트워크의 구성원들은 ‘이웃을 신뢰합니까?’라는 질문에 ‘보통’이 가장 많았고, ‘그렇다’라는 긍정의 답변은 약 40%정도였다(<표 4-4> 참조). 대전발전연구원(2013)의 기존 연구를 살펴보면 똑같이 ‘이웃이 돈을 빌려 줄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라는 질문과, ‘이웃이 도와줄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라는 질문에 대한 답변에도 응답자의 35%정도만이 ‘그렇다’라고 응답하였다. 일상생활을 함께 보내는 이웃만을 범주에 포함시키고 있기 때문에, 매일 만나는 10명 중 4명 정도만 신뢰한다고 생각했을 때 신뢰도가 높지 않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리고 신뢰의 대상을 ‘이웃’에서 거시적 차원의 ‘한국 사람’으로 확대했을 경우는 기존의 연구에서 ‘신뢰’가 현저히 낮게 나타나고 있다. 최근 현대경제연구원(2014)에 의해 진행된 사회적자본과 관련된 연구에서 신뢰의 범주를 ‘국민’이라는 범주로 측정하였을 때, 한국은 OECD국 32개국 중 28위로 최하위였다.

<표 4-4> 이웃에 대한 신뢰의 정도

단위: %

구분 \ 항목	매우 그렇다	그렇다	보통	그렇지 않다	매우 그렇지 않다	합계
이웃을 신뢰한다	2.7	37.6	53.8	5.1	0.9	100.0

그러나 이와는 다르게 자발적 참여 네트워크에서 구성원들 사이의 ‘신뢰’를 묻는 질문에는 <표4-5>와 같이 응답하였다.

〈표 4-5〉 자발적 참여 네트워크 내에서 신뢰의 정도

단위: %

구분 \ 항목	매우 그렇다	그렇다	보통	그렇지 않다	매우 그렇지 않다	합계
돈을 빌려 줄 수 있다	10.8	41.1	25.8	16.2	6.1	100.0
구성원들이 도와 줄 것이다	14.9	51.6	27.2	5.2	1.0	100.0

〈표4-5〉에서 알 수 있듯이 응답자들의 약 60%이상이 ‘그렇다’라고 응답했으며 10%내외의 응답자만이 부정적인 답변을 하였다. 즉 대부분의 응답자들은 소속된 자발적 참여 네트워크의 구성원들을 신뢰하고 있었다. 여기에서 ‘신뢰’에 대한 측정을 ‘돈을 빌려 줄 수 있다’와 ‘구성원들이 도와 줄 것이다’라는 항목으로 측정한 이유는 앞서 언급했듯이, 사회적자본을 측정하는 측정지표에서 많이 사용되는 방법이며 World Bank(2012)에서 지역적 단위의 사회적자본을 측정하기 위한 측정방법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도 지역적 단위의 사회적자본을 측정하고, 신뢰라는 폭 넓은 의미의 단어를 사회적자본의 범주에서 사용하기 위해 구체화 된 질문을 사용하여 신뢰를 측정 하였다.

‘이웃’에 대한 신뢰보다 ‘자발적 참여 네트워크’내에서 구성원들 사이의 신뢰가 훨씬 높게 나타나고 있었다. 또 하나 의미 있는 답변은 지역모임에 참여 이 후 ‘신뢰’의 변화에 대한 것이다. ‘모임에 참석 한 후에 이웃에 대한 신뢰가 모임 참석 전보다 높아졌습니까?’라는 질문에는 응답자의 55%정도가 ‘그렇다’라고 응답하고 있다(〈표4-6〉 참조). 즉 이웃에 대한 신뢰가 지역모임 참여 이후 더 높아졌다는 것이다. 이러한 응답은 자발적 참여 네트워크 안에서 형성된 신뢰의 관계가 주변 이웃에 대한 신뢰를 향상시키고 있으며 자발적 참여 네트워크가 사회적자본으로써 ‘신뢰’를 증진시키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표 4-6> 모임 참여 이후 이웃에 대한 신뢰의 변화여부

단위: %

구분 \ 항목	매우 그렇다	그렇다	보통	그렇지 않다	매우 그렇지 않다	합계
모임 참여 이후 이웃에 대한 신뢰가 높아졌다	6.1	47.9	39.4	5.8	0.7	100.0

‘지역발전을 위해서 지역모임에 참여해야한다고 생각하십니까?’라는 질문에는 응답자의 40%가 ‘그렇다’라고 응답하고 있다(<표4-7> 참조). 이와 함께 ‘대전시나 자치구에서 타인을 위해 복지관련 공공사업을 시행할 경우, 금전·시간·재능을 기부할 의향이 있습니까?’라는 질문에도 비슷한 수준으로 응답하였다(<표4-8> 참조).

<표 4-7> 지역발전을 위한 지역모임 참여의식 수준

단위: %

구분 \ 항목	매우 그렇다	그렇다	보통	그렇지 않다	매우 그렇지 않다	합계
지역발전을 위해 지역모임에 꼭 참여해야한다	5.0	33.5	40.0	18.6	2.4	100.0

<표 4-8> 지역발전을 위한 봉사활동 참여의식 수준

단위: %

구분 \ 항목	매우 그렇다	그렇다	보통	그렇지 않다	매우 그렇지 않다	합계
금전, 시간, 재능 기부할 의향이 있다	4.8	35.9	38.6	18.3	2.4	100.0

응답자의 40%정도는 지역발전과 지역모임의 연계와 함께 이웃을 위한 봉사활동에 대해서도 긍정적으로 답변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즉 지역발전과 이웃에 대한 배려심이 있으며, 이를 위해 노력할 수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지역모임을 지역사업과 연계해서 관리 할 수 있는 정책적 지원이

나 정책이 활성화 된다면, 자발적 참여 네트워크를 통한 신뢰관계 향상 및 지역발전에 긍정적인 역할을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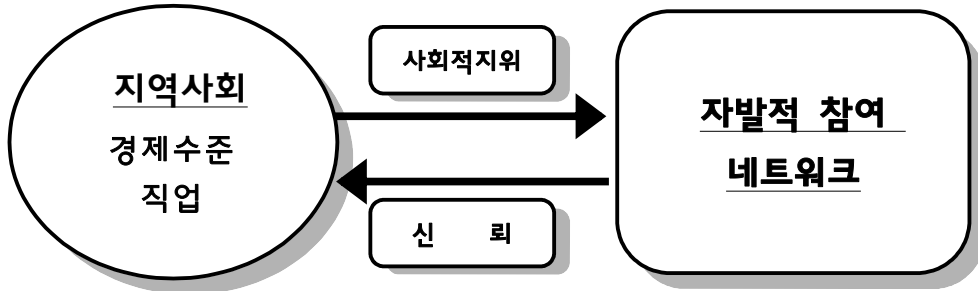
3. 종합적 분석

사회적 지위의 결정요인으로 앞서 제시했던 나이, 성별, 직업, 경제수준, 학력에 대한 인식을 조사한 결과 응답자의 대부분이 ‘경제수준(49.8%)’과 ‘직업(33.8%)’가 가장 중요하다고 인식하고 있었다. 그 외의 요인에 대해서 ‘학력’이 8.9%, ‘나이’가 6.4%, ‘성별’이 1.1%로 나타났다. 따라서 대전광역시의 경우 사회적 지위를 결정하는 요인은 ‘경제수준’과 ‘직업’으로 구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Position Generator에 의해 각각의 나라와, 나라 안의 지역들은 서로 다른 요인에 의해 사회적 지위를 형성되므로 이러한 연구 분석은 지역별 구성원들의 계층과의 갈등문제에 나타나는 주요요인이 무엇인가를 파악하여 해결책을 제시할 수 있다는 데에 그 효과성이 있다.

실증 조사 분석결과 ‘경제수준’과 ‘직업’은 , 자발적 참여 네트워크 안에서 ‘지위’를 결정하는 데 전혀 중요하지 않은 요인이었다. 오히려 모임참여기간이 ‘의사결정력’을 갖는 요인으로 작용하였다. 그러나 구성원들이 자신이 참여하고 있는 네트워크 내에서 본인의 영향력의 수준을 높게 인식하고 있는 것을 보아 자발적 참여 네트워크는 개인에게 개인의 ‘지위’에 대한 자신감을 형성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그리고 자발적 참여 네트워크 내에서는 이웃보다 구성원 사이의 신뢰의 정도가 훨씬 높았으며, 참여 이후 이웃에 대한 신뢰가 향상되었다는 응답을 통해 네트워크 활동이 신뢰를 향상시키는 데 긍정적인 역할을 한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또한 지역모임과 지역발전과의 연계나 지역봉사활동에 대해 응답자의 대부분이 긍정적인 답변을 하였다. 따라서 이것을 다시 모형으로 나타내면 <그림4-1>과 같다.

<그림 4-1> 대전광역시 사회적 지위와 자발적 참여 네트워크의 상관관계



분석을 통해 자발적 참여 네트워크는 지역 내의 ‘사회적 지위’를 통한 계층의식을 약화시키거나 완화시킬 수 있는 사회적자본이며, 구성원들간의 친목 활동을 통해 지역사회의 신뢰를 자연스럽게 회복시킬 수 있는 사회적자본임을 확인 할 수 있다. 그러므로 자발적 참여 네트워크를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지역사회의 신뢰관계를 회복할 수 있는 다양한 시책과 관리방안이 필요하다. 다음 절에서는 이와 관련된 해외사례를 살펴보고, 대전광역시에서 시행하고 있는 시책을 비교하여 보다 효과적인 자발적 참여 네트워크 활성화방안에 관해 제시하고자 한다.

제2절 대전광역시 자발적 참여 네트워크를 위한 정책적 제언

1. 공동체 의식 향상을 위한 정책적 제언

삼성경제연구원(2010)은 한국과 같이 갈등과 분열이 심한 사회에서 신뢰 등 사회협력을 증진하기 위해서는 정부의 공적 제도와 함께 사회적 네트워크 구축이라는 2가지 방법을 강조하고 있다. 특히 사회적 네트워크가 밀집하게 형

성된 사회에서는 각종 자발적 참여 단체가 활성화되고, 이것은 곧 수평적인 인간관계를 촉진해 사회적 신뢰와 협력의 수준이 높아진다. 수평적 네트워크가 발달된 사회에서는 정보의 흐름이 효율적으로 이루어지고 비공식적인 사회 규범이 잘 지켜지기 때문이다(삼성경제연구원, 2010). 그리고 곧 이러한 개념은 한국의 지방정부 발전 과제인 거버넌스의 개념과 연계되어진다. 이외에도 여러 연구에서는 단체가입률과 일반적 신뢰가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음을 실증적으로 보여주고 있다

사회적 네트워크에는 여러 네트워크를 포함하고 있으나, 본 연구에서는 Putnam(1993, 2000)의 자발적 참여 네트워크를 연구대상으로 하고 있다. 왜냐하면 사회적 네트워크가 발달하기 위해서는 비공식적인 자발적 참여 네트워크가 활발하게 이루어져야 하기 때문이다. 특히 친목, 종교, 봉사단체 등의 활성화가 사회협력 증진에 긍정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는 것은 앞서 논의한 바 있으며, 여러 연구와 함께 세계가치관조사(Knack, 2003)의 연구에서는 국가별 단체가입 데이터를 통해 비공식적 단체의 가입이 높은 국가가 일반적 신뢰수준이 높다고 밝히고 있기 때문이다. 앞 절에서도 언급했듯이 대전광역시의 경우에도 자발적 참여 단체에 가입한 후 신뢰가 증가했다는 응답률에 50%이상이었다. ‘보통’이라는 40%를 제외하면 ‘그렇지 않다’라고 응답하는 6%내외에 그쳤다. 따라서 자발적 참여 네트워크는 지역사회의 신뢰를 향상시킬 수 있는 사회적 자본이 때문에, 갈등과 불신의 문제가 많은 한국의 지역사회는 이것을 활성화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그러나 사회적 분열이 심한 사회는 서로 다른 계층이나 직업에 속한 구성원들이 자발적으로 모이기 어렵기 때문에 자발적 참여 단체가 발전하기 어렵다(Knack, 1997). 그러므로 지역정부는 이를 위해 지원정책이나 프로그램을 제공 등의 자발적 참여 단체 활성화 방안을 제고해야 한다. 물론 이러한 네트워크는 자발적인 생성이 기본이지만 한국과 같이 갈등이 심화 된 사회에서의 사회적자본은 정부차원의 공적제도 마련정책이 뒷받침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대전광역시의 경우에도 ‘지역모임 활성화를 위한 대전시의 정책적 지원이

나 재정지원이 필요하십니까?’라는 질문에 대해서 응답자의 50%이상이 ‘그렇다’라고 답변하였다. 부정적인 답변은 25%내외였으며, 정책적 지원과 재정적 지원 모두 비슷한 빈도로 응답하였다(<표4-9 참조).

<표 4-9> 지역모임 활성화를 위한 정부 지원의 필요성 여부

단위: %

구분 \ 항목	매우 그렇다	그렇다	보통	그렇지 않다	매우 그렇지 않다	합계
정책적 지원	9.1	39.4	28.9	18.6	4.0	100.0
재정적 지원	11.8	34.5	29.6	19.6	4.5	100.0

주민 참여 네트워크를 위한 지역사회 및 지역정부 차원의 활성화방안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우선 주거가 중심이 되는 지역사회에서 학교, 직장과 기업이 속한 지역공동체, 종교와 문화 등의 공통된 관심사를 가진 지역공동체에서 공동체 문화를 조성해 줄 필요가 있다. 그러기 위해서는 단체활동을 주기적으로 할 수 있는 공간을 제공해 주는 정책적 지원이 필요하다. 예를 들어 학교에서 지역사회를 위한 운동장 개방 등 학교 체육관과 관공서의 회관 등의 공간 제공 정책은 지역주민에서 장소를 제공하여 공동체 의식이 자연스럽게 형성되도록 도움을 줄 수 있다. 따라서 거주지역을 중심으로 자발적 참여 네트워크를 위한 공간이 확보될 것이며, 단체활동의 안정적인 모임을 지원해 줄 수 있을 것이다.

둘째, 이윤추구가 목적이 되는 기업에서도 지역사회 발전에 적극적으로 기여할 수 있도록 유도해야 한다. 기업이 속한 지역공동체와 함께 기업 내부의 비공식적인 자발적 참여 네트워크를 위한 재정적 지원을 위한 유도정책이 필요할 것이다. 지역사회에 공원이나 편의시설을 제공하고, 기업 내에서 봉사활동을 적극적으로 권장하는 정책 등은 지역사회에 친기업문화 형성과 함께, 지역사회에 대한 봉사활동의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기업 내 공동체 의식과 지역

사회에 대한 공동체 의식 향상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셋째로 지역사회에 대한 교육과 인센티브 부여정책이 중요하다. 공교육 현장에서 지역사회에 대한 봉사, 지역에 대한 역사의식 형성 등 사회적자본의 중요성을 교육받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야 한다. 최근 대전광역시의 ‘대전 시민대학’에서 사회적자본과 관련된 강의를 개설하고 있으며, 대전광역시청에서는 교육과 연계한 사회적자본 확충을 위한 민관협력네트워크 운영 등은 좋은 예일 것이다. 그러나 실효성을 거두기 위해서는 교육과 함께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정책이 뒷받침 되어야 할 것이다.

2. 공공지향성을 위한 정책적 제언

대전시광역시의 경우 앞서 주민의 대다수가 자발적 참여 네트워크에 소속되어 있으나, 다른 네트워크와의 교류나 지역행사의 참여와 같은 항목에는 응답자의 46%가 부정적인 응답을 하였다(<표 4-10> 참조).

<표 4-10> 다른 지역모임과의 교류 수준

단위: %

구분 \ 항목	매우 그렇다	그렇다	보통	그렇지 않다	매우 그렇지 않다	합계
참여 중인 모임이 다른 모임과 교류가 있다	3.2	29.5	21.1	36.7	9.5	100.0

선진국의 경우 자발적 결사체에서 공공지향적인 시민의식이 발전하기 때문에 자신이 속한 일차적 연고 집단을 넘어서는 느슨한 결속력을 갖는 각종 모임들, 즉 봉사모임과 같은 결사체에 참여하는 경험이 매우 중요하다고 밝히고 있다(이재열 외, 2008).

그러므로 자발적 참여 결사체가 공공지향성을 갖고 지역사회의 발전을 위해서는 ‘자원봉사’활동을 적극적으로 유도할 수 있는 정책적 지원이나 연계정

책이 중요하다. 자원봉사활동은 사회적자본의 호혜성과 함께 적극적 참여이며 네트워크의 망을 넓게 확대시켜 신뢰관계를 증가 시킬 수 있기 때문이다(김영옥, 권해수, 2011). 사실 자발적 참여 네트워크에 직접 정부가 개입하게 되면 자발성이 저해되며, 정부 의존적인 관행을 지속시킬 수 있기 때문에 자발적 참여 네트워크 내의 관여는 지양해야 한다. 그러나 자발적 참여 네트워크를 지역사회 봉사활동으로 연계하여, 네트워크를 지원하거나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제도는 선진국에서도 널리 이용되고 있다. 해외 선진국의 사례를 살펴보면 <표4-11>과 같다.

지역 커뮤니티에 자원봉사를 하는 근로자들에게 유급 특별휴가 제도를 도입하여 확대하고 있으며, 자원봉사에 참여하는 개인이나 단체의 구성원들에게 다양한 인센티브(기업의 기부예산과 자원봉사시간을 연계)를 제공하고 있다. 또한 취미·동호회의 경우 시민적으로 지향된 예술 프로젝트와 창작과 관련된 예산을 확대하여 적극적으로 지역사회에 재능을 기부하도록 유도하고 있다(홍영란, 2008).

<표 4-11> 해외의 지역봉사활동 참여를 정책 사례

사회적자본 네트워크 영역 정책사례	국가
커뮤니티 서비스를 위한 자원봉사 유급휴가 제도 확대	미국
커뮤니티 서비스를 위한 유인책 마련	미국
‘커뮤니티 예술’펀드 확대	미국
시민사회 지원 제공	미국
노인을 위한 새 지평선 프로그램	캐나다

자료 : 홍영란(2008). 본문내용을 재구성함.

〈표 4-12〉 대전광역시 사회적자본 관련 시책 중 봉사활동 참여 정책 사례

대전광역시 신규시책	부서
복지만두레(1사 1동)결연 및 공동체 사업추진	보건복지여성국
마을 공동체 텃밭 조성	경제산업국
예술클라우드 펀드, 예술 매칭 펀드를 통한 예술나무운동	문화체육국
커뮤니티 공간설치 및 의무화 또는 인센티브제공	도시주택국
고경력 은퇴인력 사회발전 참여확대	과학문화산업본부

자료 : 대전광역시 실·국·본부 신규시책 발굴보고서 참조(2013).

이와 유사성이 있는 대전광역시의 시책을 살펴보면 다음 <표4-12>와 같다.

표에서 알 수 있듯이 대전광역시의 경우에도 다양한 프로그램과 시책 중에서 네트워크에 대한 지원과 육성정책이 부서별로 시행되거나 계획 중에 있었다.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복지만두레의 활성화를 통해 기업과 개인의 적극적인 봉사활동 기회를 제고하는 시책이다. 우수사례를 선정하여 포상하거나, 감사패 등을 수여하는 등 지원을 격려하는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둘째, 마을 공동체 텃밭사업은 도심 속 방치된 유휴지를 활용하여 주민 친화시설로 사용하도록 하는 사업이다. 등산로 입·출구 지역에 농지를 임차하여 등산객을 대상으로 분양 하는 등 공동체 텃밭을 통해 공동체 문화를 육성하려는 사업이다.

셋째, 문화예술에 관심있는 시민이나 단체의 신청을 통해 우수 프로그램을 선정하여 온라인을 통해 소액 기부자를 모집 지원하는 ‘예술클라우드 펀딩’ 사업과 함께, 예술단체의 우수 콘텐츠에 대한 1:1 매칭 지원사업인 ‘예술 매칭 펀드’사업을 의미한다. 지역의 문화예술의 가치를 새롭게 인식하고 사회

적 공감대를 형성하기 위한 범국민 문화예술후원 운동으로써 ‘예술나무 1인 1그루 심기’라는 사업으로 확대 운영할 계획 중에 있다.

넷째, 주거지역과 지구단위로 광장, 주민회관, 소공원, 문화시설, 체육시설과 같은 커뮤니티 공간을 설치하여 사회적 연결망과 공동체 형성을 위한 물리적 기반 제도를 조성하는 시책이다.

끝으로 은퇴한 과학기술인, 교사의 지원을 통해 어려운 계층의 방과후 학습 지도, 진로상담 등의 기회를 제공하는 시책이다. 지역사회에서 노인에 대한 참여의 기회를 확대하여 공동체 의식을 함양할 수 있는 시책이다.

이러한 시책들이 해외 사례에서 볼 수 있는 구체적인 인센티브제도를 함께 도입하여 시행한다면 지역사회의 발전을 위한 자발적 참여 네트워크의 활성화 및 사회적자본을 확충할 수 있을 것이다.

제5장 결 론

제5장 결론

현대경제연구원(2014)에 의하면 국민 10명중 7명 정도가 우리나라의 공동체 의식 수준을 낮게 인식하고 있으며, 주요 원인으로 ‘물질만능주의(35.2%)’, ‘개인주의 문화(24.3%)’, ‘지나친 경쟁 강요(20.6%)’, ‘혈연, 지연, 학연 중심 문화(11.1%)’ 등을 지적하고 있었다. 연구에 의하며 ‘우리 국민 과반수 이상이 자발적으로 휴지를 주을 것이다’라는 질문에 55.4%가 ‘아니다’라고 응답했다고 설명하고 있다. 특히 사적인 친목단체는 많지만, 공적 공동체 참여가 미흡하게 나타났다.

우리사회가 직면하고 있는 갈등과 불신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으로써 사회적자본은, 지역공동체의 신뢰관계를 회복하여 신뢰를 향상시켜 지역사회의 발전을 이끌 수 있는 중요한 자본이다. 사회적자본의 필요성을 인식한 학자들은 다양한 분야에서 사회적자본과 관련된 연구를 진행하고 있다. 그러나 한국에서 진행된 여러 기존의 연구는 사회적자본의 영역과 의미에 대한 연구가 많으며 국가 및 시도 단위의 거시적 차원의 비교연구가 많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사회적자본과 그 효과성을 지역적 차원에서 분석하기 위한 조사설계를 Position Generator Methodology를 활용하였다. 특히 여러 가지 논의되고 있는 사회적자본 중 Putnam과 대다수의 학자가 강조하고 있는 자발적 참여 네트워크를 중심으로 조사설계를 하였고, 기존연구와 함께 한국의 문화적 특성을 고려한 사회적 지위를 결정하는 결정요인을 구분하였고, 이러한 결정요인들이 자발적 참여 네트워크 안에서는 어떠한 역할을 하고 있는지 조사 및 분석하였다.

이와 함께 자발적 참여 네트워크의 수준을 측정하기 위해서 네트워크에 소속되어 있는 구성원들을 중심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으며, 네트워크와 사회적자본인 신뢰와의 연관성을 조사하였다. 사회 계층을 구분하는 사회적 지위 결정요인 5가지는 직업, 학력, 경제수준, 성별, 나이로 구분되었고, 각각의 결

정요인에 대한 인식을 조사하였다.

그 결과 대전광역시외의 경우 '경제수준'과 '직업'이 다른 요인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높게 사회적 지위 결정요인으로 인식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그러나 이러한 사회적 지위 결정요인은 자발적 참여 네트워크 안에서는 그 영향력이 높지 않다는 것도 알 수 있었다. 즉 사회 계층을 구분하는 사회적 지위 결정요인은 자발적 참여 네트워크 안에서 중요하지 않게 인식하고, 계층에 대한 구분없이 네트워크 구성원들 사이의 친목이나 신뢰가 향상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특히 네트워크 참여 이후 '이웃에 대한 신뢰'까지 향상 되었다는 답변과 '지역발전을 위한 지역모임 참여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긍정적인 답변이 부정적인 답변보다 훨씬 많게 나타났다.

그러므로 자발적 참여 네트워크는 사회적 지위를 약화시키며, 신뢰를 향상시킬 수 있는 사회적자본이므로 지역사회발전을 위한 사회적 네트워크로 질적인 향상을 하기 위해서는 정부차원의 제도마련이 필요하다. 우선 공동체 의식을 강조하는 자발적 참여 네트워크를 위한 정책적·재정적 지원정책이 필요하며, 지역발전을 위해서 자원봉사활동 등의 공공지향성을 확보하기 위한 다양한 연계 정책 및 인센티브 정책이 요구되고 있다.

대전광역시외의 지역주민들은 사회적자본을 확충할 수 있는 기본적인 전제조건인 네트워크나 신뢰의 수준의 정도가 높으나, 이를 지역사회의 공공지향성을 형성할 수 있는 기회가 미흡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그러므로 사회적자본인 자발적 참여 네트워크가 실제로 지역사회의 발전을 위한 행동으로 연계시키기 위한 제도적 차원의 구체적 방법이 제시되어야 할 것이다. 즉 접근이 용이한 봉사단체와, 거주지역의 문제를 논의할 수 있는 공식적 지역주민의 모임 등을 체계화시키기 위해서는 지역사회와 정부의 지속적인 관심과 노력이 필요하겠다.

참고문헌

- 김영옥, 권해수. (2011). 자원봉사활동이 사회적 자본 형성에 미치는 영향. 한국거버넌스학회보, 제18권 제9호.
- 곽현근. (2012). 대전시 사회적 자본 확충을 위한 전략. 「대전지역 사회자본 확충 방향 세미나 자료집」, 대전발전연구원.
- 박희봉·이희창·조연상. (2003). 우리나라 정부신뢰 특성 및 영향요인에 관한 연구. 「한국행정학보」, 37(3): 45-66.
- 삼성경제연구소. (2009). 사회적 자본 확충을 위한 정책과제.
- 서순탁. (2001). 사회자본 접근방법의 정책적 함의. 한국행정학회 하계학술대회.
- 서순탁. (2002). 사회적 자본 증진을 위한 도시계획의 역할과 과제. 「국토연구」, 제33권: 73-87.
- 소진광. (2004). 사회적 자본 형성을 통한 지방자치와 지역발전의 연계화. 「지방행정연구」, 18(2): 68-91.
- 송경재. (2006). 한국의 지역 사회적 자본과 시민참여. 「지방행정연구」, 20(3): 133-164.
- 유석춘·정미혜·정병은·배영. (2003). 「사회자본: 이론과 쟁점」. 도서출판 그린.
- 이곤수·송진섭. (2007). 지방정부의 시민접촉에 대한 사회자본의 영향. 「한국행정학보」, 41(1): 133-152.
- 이동원·정갑영 외. (2010). 「제3의 자본」, 삼성경제연구소.
- 이숙중·김희경·최준규. (2008). 사회자본이 거버넌스 형성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한국행정학보」, 42(1): 149-170.
- 임승빈·이승중. (2005). 지방정부 역량과 자치구의 사회적 자본과의 관계. 「지방행정연구」, 19(3): 3-26.
- 최기조. (2010). 사회적 자본과 지역발전의 관계에 대한 실증연구. 한국행정학회 하

계학술대회.

최길수·김동신. (2013). 사회적자본 지표개발 및 적용에 관한 연구. 대전발전연구원 정책연구보고서.

홍영란 외. (2007). 사회적 자본 지표 개발 및 측정에 관한 연구. 한국교육개발원 정책연구보고서.

홍영란. (2008). 사회적 자본 형성을 위한 정책 어젠다. KEDI Position Paper, 제5권 제9호.

한국개발연구원. (2007). 한국경제·사회와 사회적 자본.

현대경제연구원. (2014). 한국사회자본, 나를 넘어 공동체로. VIP 리포트. 통권578.

Adler, P. S. & Kwon, W. (2000). Social Capital: The Good, The Bad, the Ugly. In Erick L. Lesser (ed.) Knowledge and Social Capital: Foundation and Application. Butterworkh-Heinemann.

Bae, K.H. (2005). The Process of Enhancing Social Capital in the City of Los Angeles. International Review of Public Administration, 9(2): 121-138.

Bain, K., & Hicks, N. (1998). Building Social Capital and Reaching Out to Excluded Groups: The Challenge of Partnerships. in Paper presented at CELAM meeting on The Struggle Against Poverty Towards the Turn of the Millenium. Washington D.C

Baker, W.E. (1990). Market Networks and Corporate Behavior. American Journal of Sociology, 589-625.

Bourdieu, P. (1986). The Forms of Capital, in J.G. Richardson (ed.) Handbook of Theory and Research for the Sociology of Education. NY: Greenwood.

Burt, R. (1992). Structural Hole: The Social Structure of Competition. Boston: Harvard University Press.

Claibourn, M. P. & Martin, P. S. (2007). The Third Face of Social Capital: Membership in Voluntary Associations Improves Policy Accountability.

- Political Research Quarterly, 60(2): 192–201.
- Coleman, J. (1988). Social Capital in the Creation of Human Capital. *American Journal of Sociology*, 94:s94–s121.
- Coleman, J. (1990). *Foundations of Social Theory*. Cambridge: Harvard University Press.
- Daniere, A. (2002). Social Capital, Networks, and Community Environments in Bangkok, Thailand. *Growth and Change*, 33: 453–484.
- Danville Regional Foundation. (2009). *Danville Region Social Capital Survey*. Danville Regional Foundation.
- Durlauf, S. N. (1999). The Case “Against” Social Capital. *Focus*, 20(3): 1–5.
- Durlauf, S. N. (2002). Symposium on Social Capital: Introduction. *The Economic Journal*, 112: 417–418.
- Esser, H. (2008). The Two Meanings of Social Capital. In Castiglione, D. Van Deth, J. & Wolleb, G. (Eds.), *The Handbook of Social Capital*. Oxford: Oxford University Press.
- Fukuyama, F. (1995). *Trust: The Social Virtues and the Creation of Prosperity*. New York: Free Press.
- Grootaert, C. & Van Bastelaer, T. (2002). Conclusion: Measuring Impact and Drawing Policy Implication. In Thierry Van Bastelaer (ed.) *The Role of Social Capital in Development*. Melbourne: Cambridge University Press.
- Knack, S & Keefer, P. (1997). Does Social Capital Have an Economic Payoff?. *The Quarterly Journal of Economics*.
- Knack, S. (2003). Group, Growth and Trust: A Cross–Country Evidence on the Olson and Putnam Hypotheses. *Public Choice*.
- Krishna, Anirudh. (2002). *Active Social Capital: Tracing the Roots of Development and Democracy*. New York: Columbia University Press.

- Lin, Nan (2001). *Social Capital: A Theory of Social Structure and Action*. Cambridge University Press.
- Lin, Nan. & Erickson B. H. (2012). *Social Capital*. Oxford University Press.
- Narayan, Deepa. (2000). *Voices of the Poor: Can Anyone Hear Us?* New York: Oxford University Press.
- Narayan, D. & Cassidy, M. F. (2001). A Dimensional Approach to Measuring Social Capital: Development and Validation of a Social Capital Inventory. *Current Sociology*, 49: 59–102.
- North, D. C. (1990). *Institutions, Institutional Change and Economic Performance*.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 Ostrom, E. (2000). Social Capital: a Fad or a Fundamental Concept? In Partha Dasgupta & Ismail Serageldin (eds.) *Social Capital: A Multifaceted Perspective*. Washington, D.C.: The World Bank.
- OECD. (2001). *The Well-being of Nations. The Role of Human and Social Capital*. Center for Educational Research and Innovation. Organization for Economic Cooperation and Development, Paris.
- Paxton, P. (1999). Is Social Capital Declining in the United States? A Multiple Indicator Assessment. *American Journal of Sociology*, 105(1): 88–127.
- Portes, A. (1998). Social Capital: Its Origins and Applications in Modern Sociology. *Annual Review of Sociology*, 22: 1–24.
- Putnam, R. D. (1993). *Making Democracy Work: Civic Traditions in Modern Italy*. Princeton: Princeton University Press.
- Putnam, R. D. (1995). Bowling Alone: America's Declining Social Capital. *Journal of Democracy*, 6(1): 65–78.
- Putnam, R. D. (2000). *Bowling Alone: The Collapse and Revival of Community*. New York: Touchstone Books.

- Sander, T. H. (2002). Social Capital and New Urbanism: Leading a Civic Horse to Water. *National Civic Review*, 91: 213–221.
- Sandel, Michael. J. (2010). *Justice*. Farrar Straus & Giroux.
- The World Bank. (2004). *Measuring Social Capital*. Washington, D. C. The World Bank
- Woolcock, M. (1998). Social Capital and Economic Development: Toward a Theoretical Synthesis and Policy Framework. *Theory and Society*, 27: 151–208.

부
부

대전의 사회적자본 측정을 위한 설문지

안녕하십니까?

대전발전연구원 사회적자본연구센터에서는 신뢰와 배려심 속에 사람들 사이의 좋은 관계가 있는 대전을 만들어간다는 대전형 사회적자본의 증진을 위한 다양한 연구과제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맥락에서 본 조사는 대전형 사회적자본의 증진을 위한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하는데 있어서 소중한 기초자료로 활용코자 하는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선생님께서 응답하신 내용은 통계를 내는 목적으로 사용될 뿐, 개인별 세부 응답 내용은 외부에 노출되지 않으며, 통계법에 의거하여 절대 비밀이 보장됩니다.

바쁘시겠지만 설문에 응답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2014년 월

대전발전연구원장

* 본 조사에 대한 문의는 아래의 연락처로 주시기 바랍니다.

대전발전연구원 사회적자본연구센터장 박노동

(☎ 042-530-3523, 팩스: 042-530-3565, E-Mail: labourbak@djdi.re.kr)

해당란에 '√' 표 하시거나, 직접 기입해 주시기 바랍니다.

1. 귀하께서 현재 소속된 지역모임이 있으시다면, 가장 열심히 활동하고 계신 모임을 두 개를 골라주세요.(한 개밖에 없으시면 한 개를 선택해 주시기 바랍니다.)

- | | | |
|-----------|----------------|---------|
| ① 친목(계)모임 | ② 학부모모임 | ③ 동창회 |
| ④ 향우회 | ⑤ 취미·문화모임(동호회) | ⑥ 복지만두레 |
| ⑦ 봉사모임 | ⑧ 시민단체 | ⑨ 정치단체 |
| ⑩ 종교단체 | ⑪ 기타 (_____) | |

2. 귀하께서는 어떻게 위에서 선택하신 지역모임의 구성원이 되셨습니까?

지역 모임 1	지역 모임 2
① 자발적인 지원에 의해서	① 자발적인 지원에 의해서
② 가족이나 지인의 권유에 의해	② 가족이나 지인의 권유에 의해
③ 의무에 의해서	③ 의무에 의해서
④ 기타 (_____)	④ 기타 (_____)

3. 귀하께서 참여하고 계신 지역모임의 구성원들은 아래의 수준이 동일합니까?

	지역 모임 1	지역 모임 2
1) 직업	① 예 ② 아니오	① 예 ② 아니오
2) 학력	① 예 ② 아니오	① 예 ② 아니오
3) 경제수준	① 예 ② 아니오	① 예 ② 아니오

16. 귀하께서는 과거 12개월 동안 지역사회에서 아래와 같은 경험을 하신 적이 있으십니까?

구분	예	아니오
1) 직장으로 인해 불이익을 받은 적이 있다.	①	②
2) 나이로 인해 불이익을 받은 적이 있다.	①	②
3) 성별로 인해 불이익을 받은 적이 있다.	①	②
4) 기타 다른 이유로 인해 불이익을 받은 적이 있다.	①	②

17. 귀하에게 큰 혜택은 없지만 지역사회의 다른 사람에게 혜택이 있는 복지관련 공공사업을 대전시 또는 자치구에서 시행할 경우, 귀하께서는 이 사업에 금전이나 시간 또는 재능 기부를 하실 의향이 있으십니까?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이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①	②	③	④	⑤

18. 귀하께서는 대전시의 마을공동체지원사업(마을만들기, 마을텃밭 만들기 사업 등)에 대해서 알고 계십니까?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이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①	②	③	④	⑤

19. 귀하께서는 지난 12개월 동안 대전시나 지역 관공서(주민센터, 학교, 병원 등)에서 주최하는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하는 행사에 참여하신 적이 있으십니까?

- ① 1회 참여한 적이 있다
- ② 2회 참여한 적이 있다
- ③ 3회 참여한 적이 있다
- ④ 4회 이상 참여한 적이 있다
- ⑤ 전혀 참여한 적이 없다

20. 귀하께서는 대전시나 지역 관공서에서 지역주민을 위한 모임을 개최하신다면 참여하고 싶으십니까?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이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①	②	③	④	⑤

▶ 조사 자료의 분류를 위해 다음의 물음에 응답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 성 별	① 남성 ② 여성	2) 연 령	만 ()세
3) 학 령	① 중졸 이하 ④ 대학원 졸	② 고졸 ⑤ 기타_____	③ 대졸(전문대포함)
4) 거 주 지	① 동구 ② 중구 ③ 서구 ④ 유성구 ⑤ 대덕구		
5) 출 신 지	① 서울특별시 ② 인천광역시 ③ 경기도 ④ 강원도 ⑤ 대전광역시 ⑥ 충청북도 ⑦ 충청남도 ⑧ 광주광역시 ⑨ 전라북도 ⑩ 전라남도 ⑪ 부산광역시 ⑫ 대구광역시 ⑬ 울산광역시 ⑭ 경상북도 ⑮ 경상남도 ⑯ 제주도 ⑰ 기타 ()		
6) 직 업	① 농업/어업/임업 ② 자영업 ③ 판매/서비스업 ④ 기능직 ⑤ 사무직 ⑥ 경영/관리직 ⑦ 전문/자유직 ⑧ 가정주부 ⑨ 은퇴/퇴직자 ⑩ 무직 ⑪ 기타()		
7) 주거형태	① 주상복합 ② 단독주택 ③ 아파트 ④ 다세대/다가구·연립주택 ⑤ 기타_____		
8) 월평균 가구 총 소득	약 () 만원		
9) 거주기간	① 대전시 거주 : 약()년	② 현재 동네 거주 : 약()년	
10) 주택소유형태	① 자택 ② 전세 ③ 월세		
11) 혼인상태	① 미혼 ② 기혼 ③ 이혼 ④ 사별		
12) 정치적 성향	① 보수 ② 중도 ③ 진보		

바쁘신 중에 끝까지 응답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정책연구보고서 2014-17

사회적자본 확충을 위한 자발적 참여 네트워크에 관한 연구

발행인 대전발전연구원
발행일 2014년 7월
발행처 대전발전연구원
301-763 대전광역시 중구 중앙로 85(선화동287-2)
전화: 042-530-3523 팩스: 042-530-3528
홈페이지 : <http://www.djdi.re.kr>

인쇄처 : 영창당인쇄사 TEL 042-626-7888 FAX 042-626-9888

이 보고서의 내용은 연구책임자의 견해로서 대전광역시의 정책적 입장과는 다를 수 있습니다.
출처를 밝히는 한 자유로이 인용할 수 있으나 무단 전재나 복제는 금합니다.

ISBN : 978-89-98154-83-7 93320